

KAN AUCTION

45th AUCTION WITH KOREAN ART

2026. 11. 27 FRI



KAN AUCTION

45th AUCTION WITH KOREAN ART

경매 AUCTION

2026. 11. 27(금) 오후4시

전시 PREVIEW

2026. 11. 16(월) — **11. 26**(목)

건국빌딩 건국관1층 칸옥션 전시장

칸 KAN Auction

NOTICES
공지사항

경매약관	칸옥션 미술품 경매는 칸옥션의 약관 및 공지사항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응찰 희망자는 반드시 칸옥션의 약관과 공지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응찰을 희망하시는 분은 프리뷰 기간 중 본인의 책임 아래 작품의 상태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칸옥션은 응찰자가 직접 작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매도록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응찰자로부터 응찰을 수령합니다.
회원가입	칸옥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칸옥션의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됩니다. 가입 신청은 칸옥션 홈페이지와 경매도록에 첨부되어있는 회원가입 신청서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찰	응찰 희망자는 칸옥션의 경매약관에 따라 현장응찰,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응찰 및 전화 응찰 신청은 경매 1일 전 오후 7시까지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응찰 관련 내용은 녹음, 녹화 또는 기록될 수 있으며 응찰자는 응찰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면, 현장 및 전화 응찰자가 동일 금액으로 응찰 한 경우 서면응찰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서면 응찰이 동일한 금액으로 중복될 경우 먼저 응찰서를 제출한 회원에게 낙찰됩니다.)
수수료	구매 수수료는 낙찰가의 15%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응찰시 수수료를 감안하신 후 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찰대금결제	낙찰자는 약관 및 공지사항에 따라 낙찰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총 구매대금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칸옥션과 경매 이전에 구매가를 분할 지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40-011-338178 주식회사 칸옥션
기타소득세(양도소득세)	2013년부터 개인이 서화, 골동품을 양도할 때, 그 양도 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매작품의 보관 및 운송	낙찰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경매 물품을 인수하셔야 합니다. 낙찰자가 직접 방문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미술품의 특성 상 전문 운송회사를 이용하셔야 하며 운송비는 낙찰자 부담입니다. 작품 배송 일정에 관해서는 칸옥션과 낙찰자가 미리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행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시행됩니다. 관련 법에 의거하여 수수료와 부가가치세(VAT)의 금액만큼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 시행합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GUIDE
안내사항

칸옥션 경매에 출품된 모든 작품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출품되었습니다. 칸옥션은 작품에 포함된 각종 정보와 부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작품 감상 및 응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매 도록에 제공된 사항들은 응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칸옥션은 그 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응찰 희망자는 프리뷰 기간 중 작품 상태와 도록에 포함된 정보 등을 본인의 책임 아래 확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도록에 실린 작품을 설명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정보 이외의 도록에 추가된 설명은 객관적 사실만을 서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호	작가의 대표적인 아호를 성명 앞에 쓰며, 한글과 한자를 함께 표기합니다.
작가명	작가의 성과 이름을 쓰며 한글과 한자를 함께 표기합니다.
생몰년	작가의 출생과 사망년도를 표기하며 -는 현재 생존, ?는 미상을 나타냅니다.
전傳	관서나 인기가 없으나 작품의 경향(필치, 구도, 채색) 등이 해당 작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경우 전傳을 사용합니다. 위창 오세창, 영운 김용진, 송은 이병직, 소전 손재형 등 감식안을 신뢰할 수 있는 선학의 배관, 제발, 소장인(감장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傳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품명	기존의 작품명 등을 참고하며, 작품명이 없을때는 시의 제목, 작품의 내용, 화제 등을 참고하여 표기합니다. 그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도圖는 생략합니다.
제작시기	간지로 된 것은 서기(간지)로 표기하며,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몇세기로 표기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월, 일까지 표기합니다.
재질, 재료, 기법	작가가 어떤 바탕(종이, 비단, 모시, 캔버스, 패널 등)에 어떤 재료(먹, 수묵, 채색, 유채 등)를 사용하여 어떤 기법으로 제작했는지 표기합니다.
크기	평면 : 세로x가로 cm 입체 : 도자기 - 고(높이)x구경(입지름)x저경(밑지름)㎝ 공예품 - 고(높이)x세로(깊이)x가로(폭) 기 타 - 얇고 길거나 굴곡이 많은 작품(조각, 횟대 등)은 최대길이만, 같은 작품이 여러 점일 경우는 대표적인 것만 표기합니다.
형태	작품을 꾸민 방법을 기록합니다.예) 액자, 족자, 병풍, 가리개, 책, 배접 등
본관, 자	작가의 본관을 기록한 후, 표시 뒤에 대표적인 자字를 기록합니다.
추정가	회사가 미술 시장의 거래가격, 희소성, 자료의 가치, 미술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가격입니다. 추정가는 응찰의 참고 자료이며 회사가 보증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추정가는 낙찰가와 무관하며, 회사는 추정가가 대외적으로 인용되는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품해설	관람자와 응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합니다.
출처, 감정서	작품수록 문헌의 서지사항, 감정서, 작품 소장 이력과 출처, 문화재 지정(국보, 보물 등)번호 등을 기록합니다.
탈초, 번역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하며, 일반적인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경매 도록에 탈초, 번역이 되어있지 않은 작품에 대해 칸옥션을 통해 탈초, 번역을 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INDEX
색인

서·화 (작가명 가나다순)

고희동 春谷 高羲東 046, 068, 069
김구 白凡 金九 007
김규진 海岡 金圭鎭 060, 066
김기창 雲甫 金基昶 031, 075
김명희 山泉 金命喜 018
김상옥 艸丁 金相沃 026
김세종 望日山人 金世鍾 107
김시종 東里 金始鍾 028
김식 退村 金埴 092
김은호 以堂 金殷鎬 036, 069
김응원 小湖 金應元 065
김응현 如初 金膺顯 002
김정희 秋史 金正喜 022
김창협 農巖 金昌協 015
김형근 金炯董 108
김홍집 道園 金弘集 010
나카무라 후세쓰 中村不折 029
남관 南寬 104, 105
노수현 心汕 盧壽鉉 033, 045, 069
문봉선 無如 文鳳宣 042
문신 文信 103
박규수 桓齋 朴珪壽 012
박기정 此江 朴基正 082
박노수 藍丁 朴魯壽 030, 034
박대성 小山 朴大成 043, 044, 101
박두진 兮山 朴斗鎭 025
박목월 朴木月 027
박생광 乃古 朴生光 058, 077
박승무 深香 朴勝武 037, 057, 067
박용래 朴龍來 027
배렴 霽堂 裵濂 038
백윤문 香塘 白潤文 069, 070
변관식 小亭 卞寬植 039, 069
서세옥 山丁 徐世鈺 035
서정주 未堂 徐廷柱 107
서희환 平步 徐喜煥 006
손재형 素荃 孫在馨 051
송수남 南天 宋秀南 064
송수면 沙湖 宋修勉 097
송준길 同春堂 宋浚吉 013
신상호 松南 申相浩 108
신석초 申石艸 027
신윤복 蕙園 申潤福 081
신헌 威堂 申櫶 087
어재연 魚在淵 011
오세창 葦滄 吳世昌 001, 029, 069
유희강 劍如 柳熙綱 003
윤순 白下 尹淳 019
이도영 貫齋 李道榮 069
이삼만 蒼巖 李三晩 021
이상범 靑田 李象範 047, 050, 073
이석호 一觀 李碩鎬 071
이성린 蘇齋 李聖麟 084
이왈종 李曰鍾 032, 078
이용우 墨鷺 李用雨 056
이우진 平遠 李羽晉 020
이의현 陶谷 李宜顯 016
이종상 一浪 李鐘祥 102, 106
이준 海史 李儁 009
이철경 李喆卿 004
이한복 無號 李漢福 063
장우성 月田 張遇聖 041
정기호 石佛 鄭基浩 005
정대유 又香 丁大有 008
정두경 東溟 鄭斗卿 014
정성원 玄菴 鄭成源 080
정약용 茶山 丁若鏞 017
정운면 東岡 鄭雲葂 072
정학교 夢人 丁學敎 061, 083
조윤형 松下 曺允亨 024
지성채 春艸 池盛彩 074
지운영 白蓮 池雲英 040
채용신 石芝 蔡龍臣 088
최린 古友 崔麟 052
최우석 鼎齋 崔禹錫 069
허건 南農 許楗 048, 059, 076
허련 小癡 許鍊 023, 062, 090, 093
허백련 毅齋 許百鍊 049,051,053,096,099
허행면 木齋 許行冕 099
허형 米山 許瀅 095, 098
황종하 友石 黃宗河 079

서·화 (작가미상 가나다순)

게 蟹 055
노안 蘆雁 054
모란화조 牡丹花鳥 2점 089
산수 6폭병풍 山水六幅屛風 086
산수 山水 091
송탁구성궁비 宋拓九成宮碑 탁본첩 029
조선전도 朝鮮全圖 100
호렵도 8폭병풍 胡獵圖八幅屛風 094
화조 8폭병풍 花鳥八幅屛風 085

공예·도자 (작품명 가나다순)

나전당초문삼족받침대 螺鈿唐草文三足圓形臺 114
나전봉황문구형합 螺鈿鳳凰文球形盒 113
당초문벼루 唐草文硯 111
매죽조어문벼루 梅竹釣魚文硯 112
백동난사·응전명 화로 白銅蘭麝·凝篆銘火爐 115
백택·용문주머니모양열쇠패 白澤龍文囊形鍵牌 2점 118
상평통보용문사각열쇠패 常平通寶龍文四角鑰牌 117
연화문벼루 蓮花文硯 110
오복문주머니모양열쇠패 五蝠文囊形鍵牌 116
호랑이송죽매문벼루虎松竹梅文硯 109







001

위창 오세창 葦滄 吳世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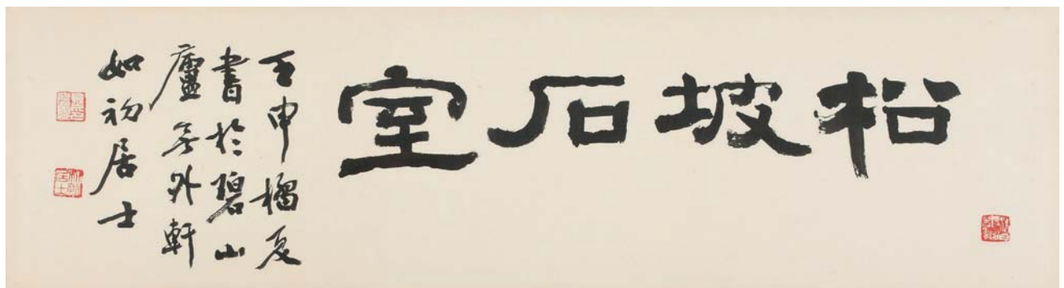
해주海州, 중명仲銘/ 1864-1953

연비어약 鳶飛魚躍

비단에 먹/ 액자

24.5x71.5cm

₩ 600,000-1,300,000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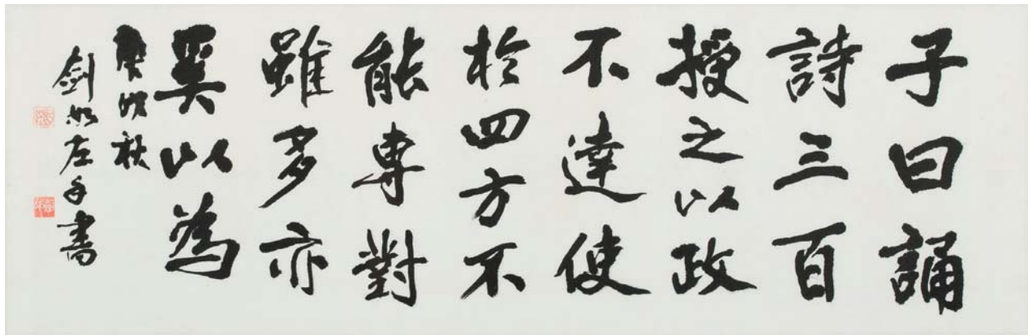
여초 김응현 如初 金膺顯

안동安東, 선경善卿/ 1927-2007

송파석실 松坡石室

1992년(임신)
종이에 먹/ 액자
34.5x127.2cm

₩ 400,000-1,300,000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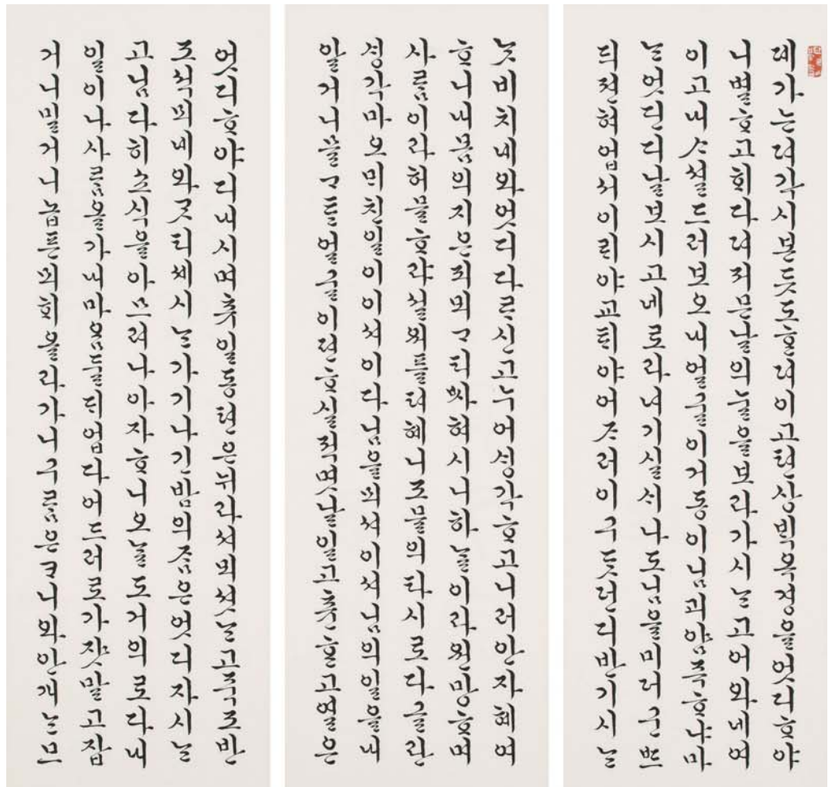
검여 유희강 劍如 柳熙綱

진주晋州/ 1911-1976

논어 자로편 論語 子路編

1970년(경술)
종이에 먹/ 액자
31.4x97.6cm

₩ 600,000-1,500,000



004

갈물 이철경 李喆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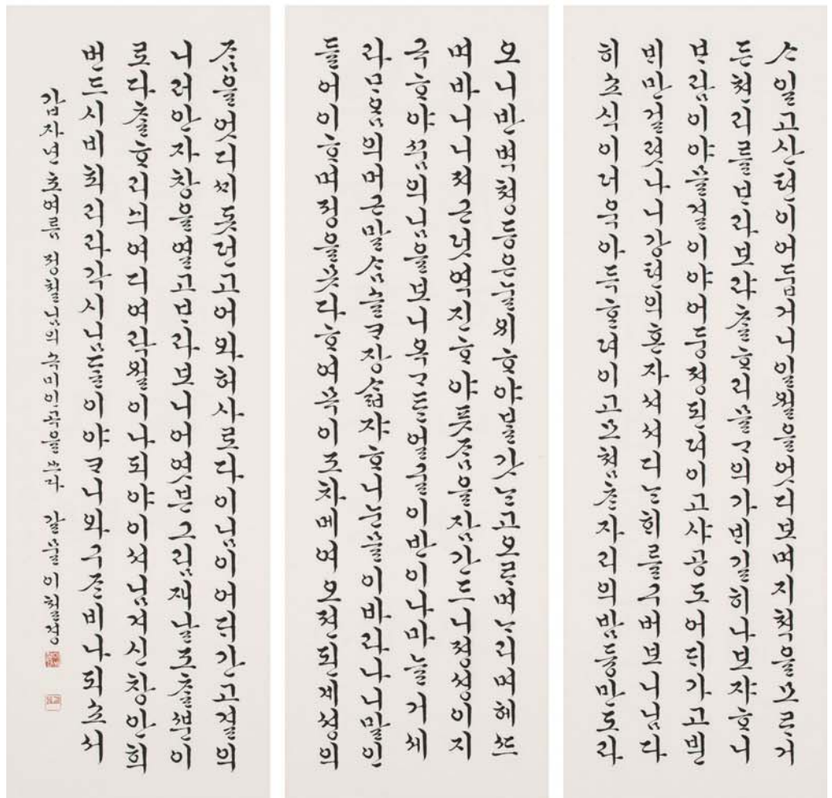
한산韓山/ 1914-1989

속미인곡 6폭병풍

續美人曲六幅屛風

1984년(갑자)
종이에 먹/ 병풍
90.3x30cmx6

₩ 2,000,000-5,000,000





005

석불 정기호 石佛 鄭基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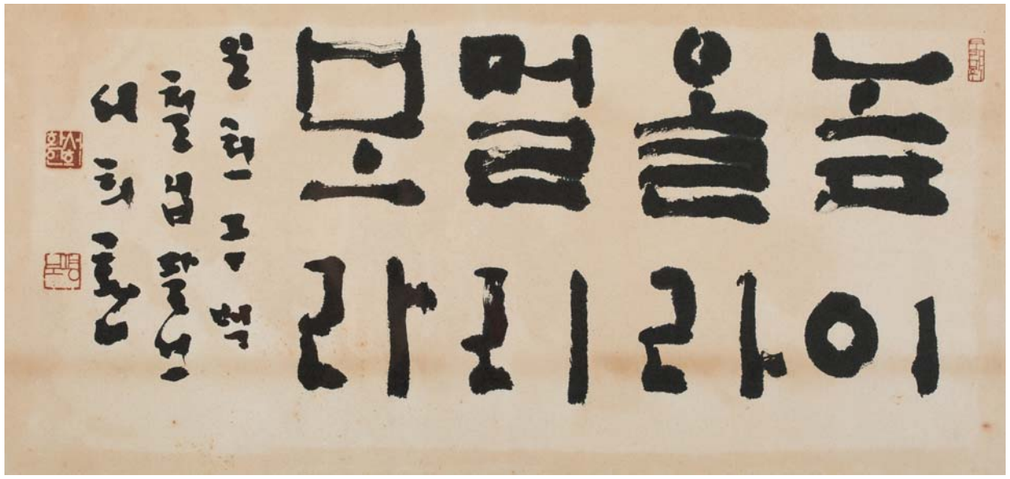
1899-1989

죽필대자서 8폭병풍 竹筆大字書八幅屛風

1979년
종이에 먹/ 병풍
108x33.8cmx8

₩ 1,500,000-3,000,000

孝悌忠信禮義廉恥 百子千孫富貴吉祥



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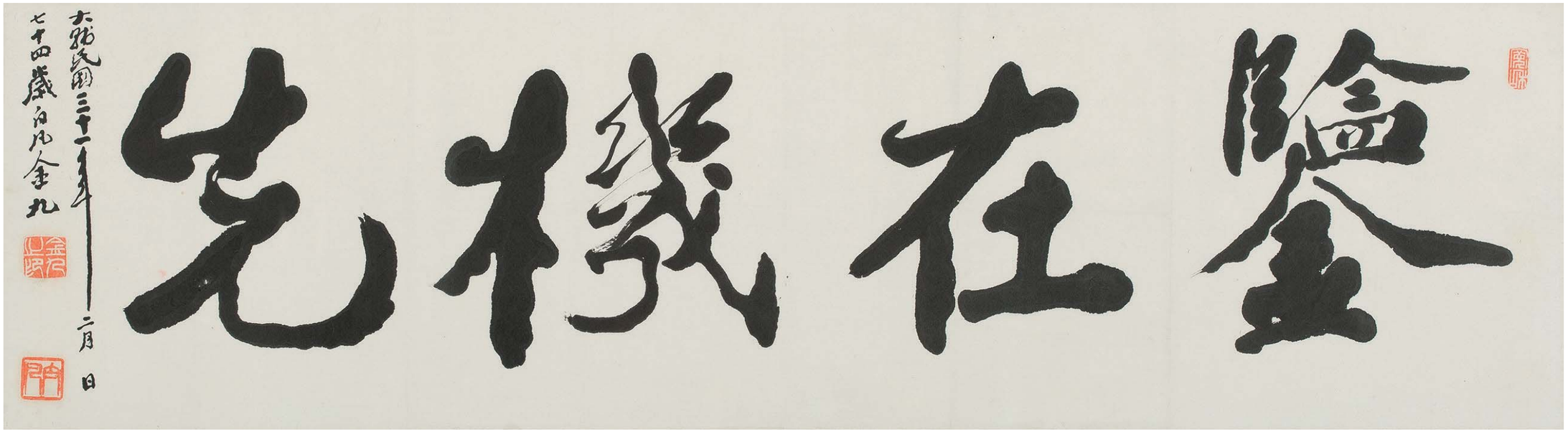
평보 서희환 平步 徐喜煥

이천利川/ 1934-1998

높이 올라 멀리 보라

1978년
종이에 먹/ 액자
31.6x68cm

₩ 500,000-1,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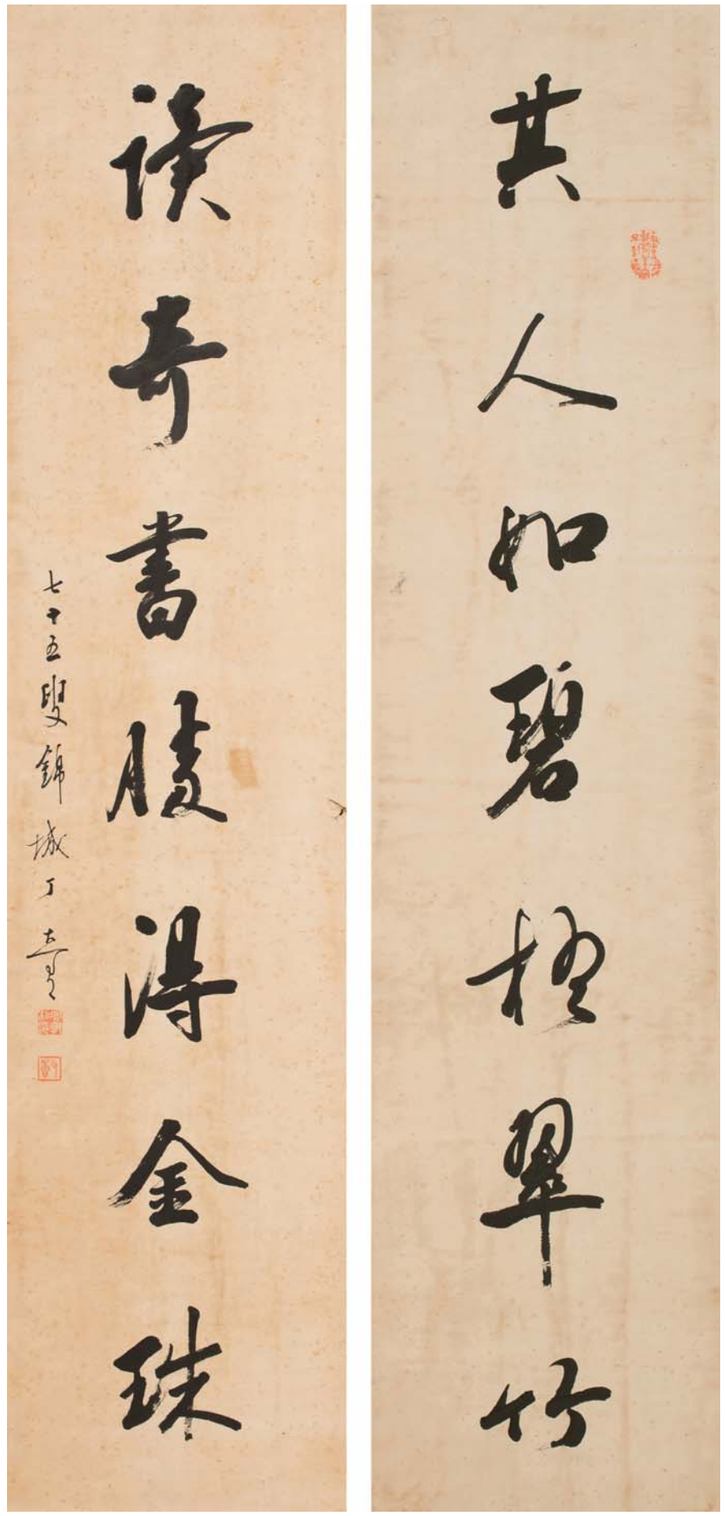
일의 조짐을 미리 살펴 헤아리다.

007

백범 김구 白凡 金九
안동安東/ 1876-1949

감재기선 鑑在機先
1949년
종이에 먹/ 액자
31x113cm

₩ 10,000,000-25,000,000



其人如碧梧翠竹 讀奇書勝得金珠

그 인품은 푸른 오동과 대나무 같고,
좋은 책을 읽는 즐거움은 금은보화를 얻는 것보다 낫네.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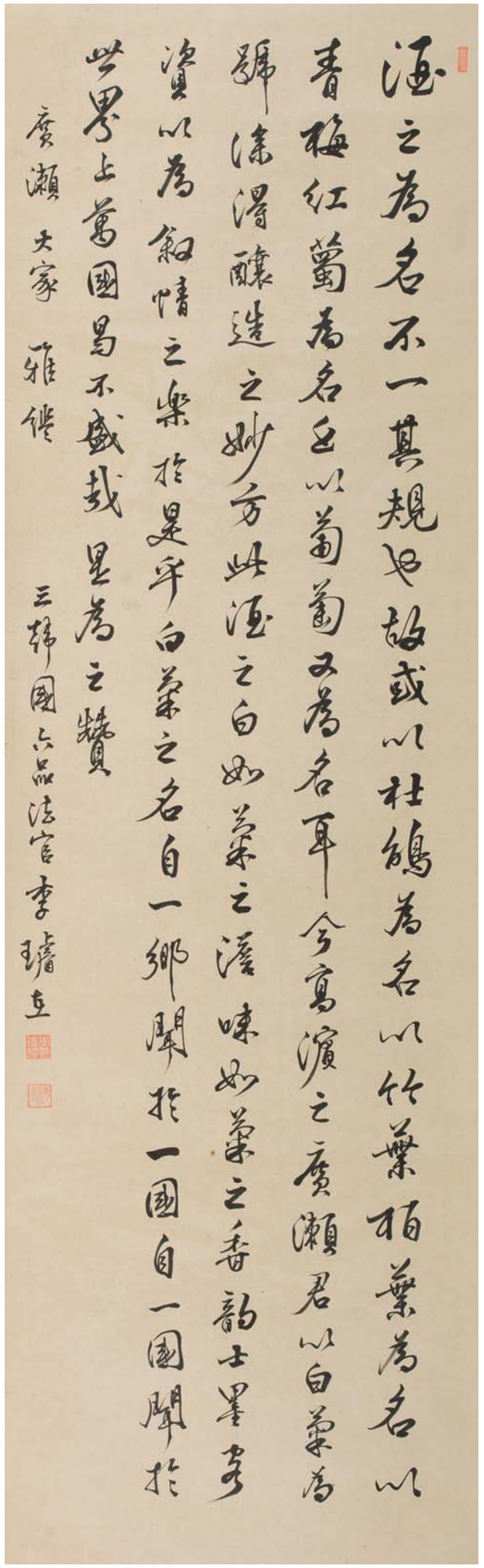
우향 정대유 又香 丁大有

나주羅州/ 1852-1927

시고 詩稿 대련

1926년
종이에 먹/ 가리개
128.1x29.8cmx2

₩ 400,000-1,000,000



009

해사 이준 海史 李儁

전주全州, 순칠舜七/ 1859-1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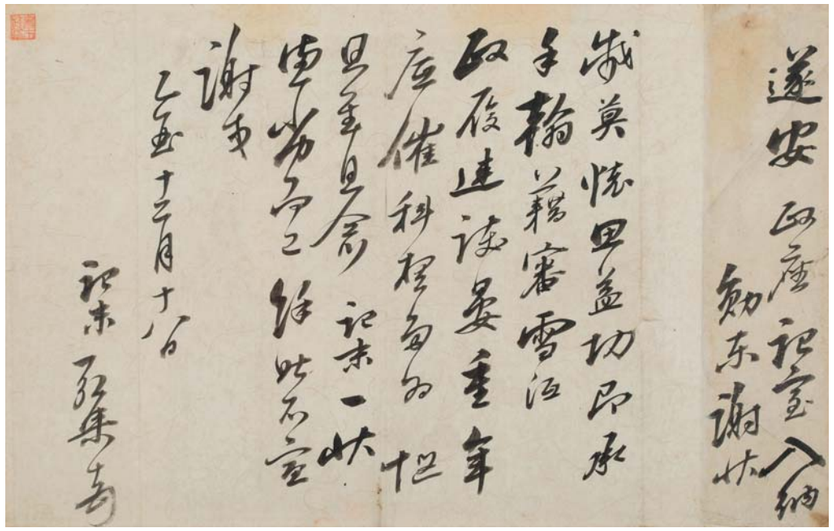
시고 詩稿

종이에 먹/ 족자
136.1x41.2cm

₩ 4,000,000-8,000,000

酒之爲名不一其規也,故或以杜鵑名 以竹葉栢葉爲名 以青梅紅蠁爲名 近以葡萄又爲名耳
今高濱之廣瀨君 以白菊爲號,深得釀造之妙方 此酒之白如菊之澹 味如菊之香 韵士墨客 資以爲敍情之樂 於是乎 白菊之名 自一鄕聞於一國 自一國聞於世界上萬國 曷不盛哉 是爲之贊

술의 이름을 짓는 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혹은 두견杜鵑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하고, 죽엽竹葉이나 백엽栢葉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하며, 청매青梅나 홍촉紅蠁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한다. 근래에는 포도葡萄의 이름을 딴 술도 생겨났다.
지금 다카하마高濱의 히로세廣瀨 씨는 술에 '백국白菊'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양조의 묘법을 깊이 터득하였다. 이 술의 빛깔은 흰 국화처럼 맑고 담박하며, 그 맛은 국화의 향기처럼 그윽하다. 풍류를 아는 선비와 문인들은 이 술을 벗 삼아 자신의 감흥을 풀어내는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에 백국이라는 이름은 한 고을에서 온 나라로 알려지고, 한 나라에서 다시 세계 여러 나라로 널리 퍼지게 되었으니, 어찌 성대하다 하지 않겠는가. 이에 그 술을 찬미하는 글을 짓는다.



010

도원 김홍집 道園 金弘集

경주慶州, 경능景能/ 1842-1896

서간 書簡

1885년(을유)
종이에 먹/ 액자
24.6x39.2cm

₩ 700,000-1,800,000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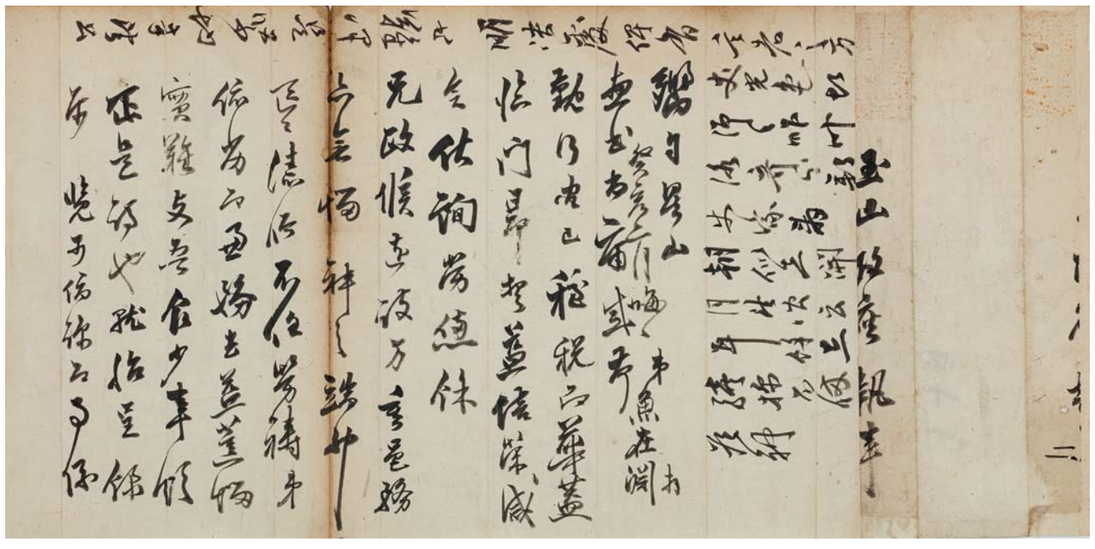
어재연 魚在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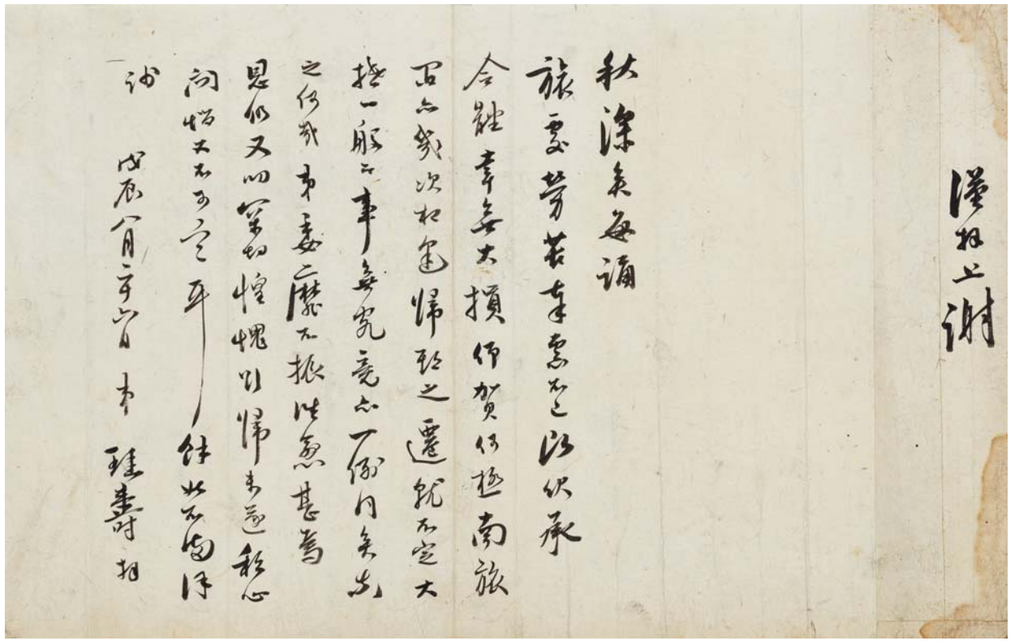
함종咸從, 성우性于/ 1823-1871

서간 書簡

1863년(계해)
종이에 먹/ 가배접
30.6x62.5cm

₩ 500,000-1,300,000





012

환재 박규수 桓齋 朴珪壽

반남潘南, 환경桓卿/ 1807-1877

서간 書簡

1868년(무진)
종이에 먹/ 가배접
31x44.2cm

₩ 800,000-1,800,000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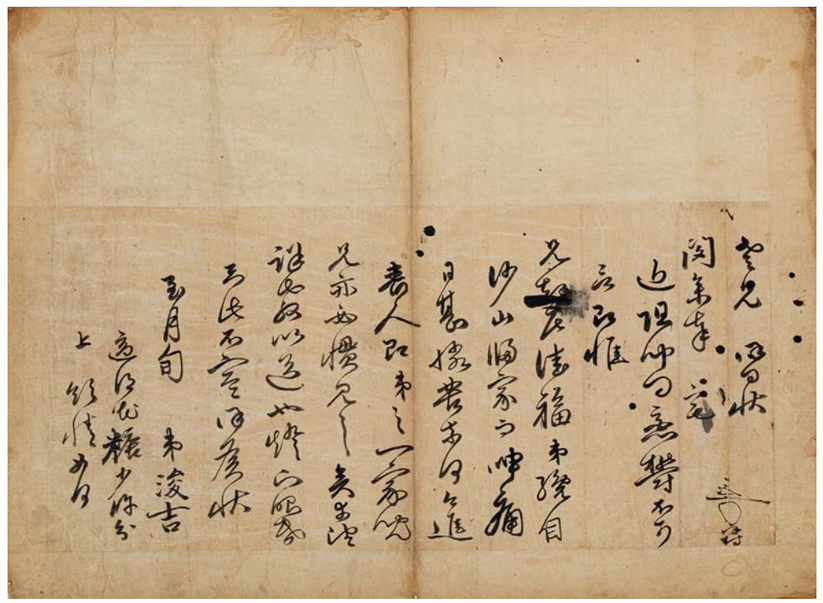
동춘당 송준길 同春堂 宋浚吉

은진恩津, 명보明甫/ 1606-1672

서간 書簡

종이에 먹/ 가배접
27.5x35.3cm

₩ 500,000-1,000,000



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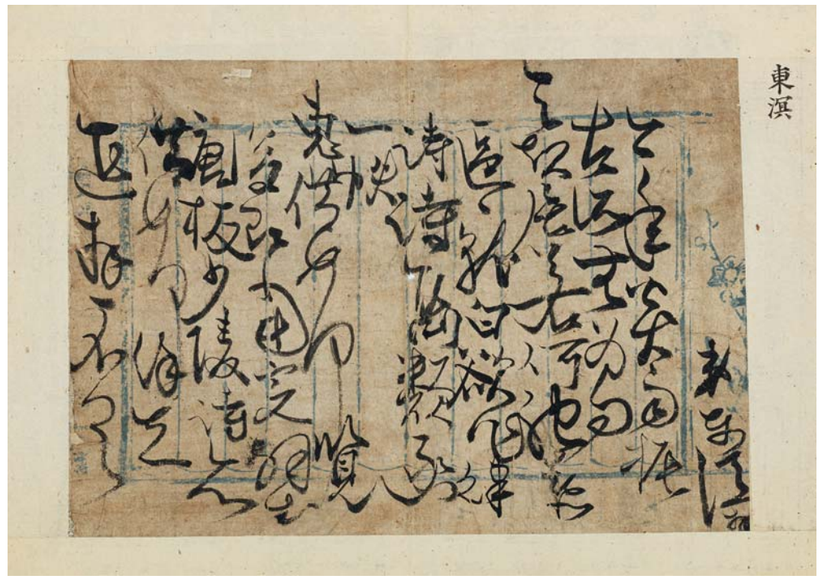
동명 정두경 東溟 鄭斗卿

온양溫陽, 군평君平/ 1597-1673

서간 書簡

종이에 먹/ 가배접
20.3x29cm

₩ 500,000-1,300,000



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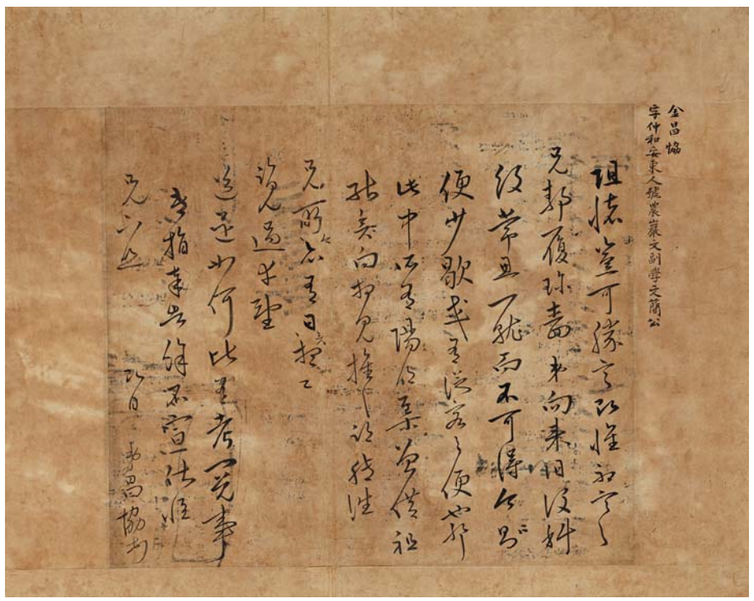
농암 김창협 農巖 金昌協

안동安東, 중화仲和/ 1651-1708

서간 書簡

종이에 먹/ 가배접
30.5x35cm

₩ 500,000-1,400,000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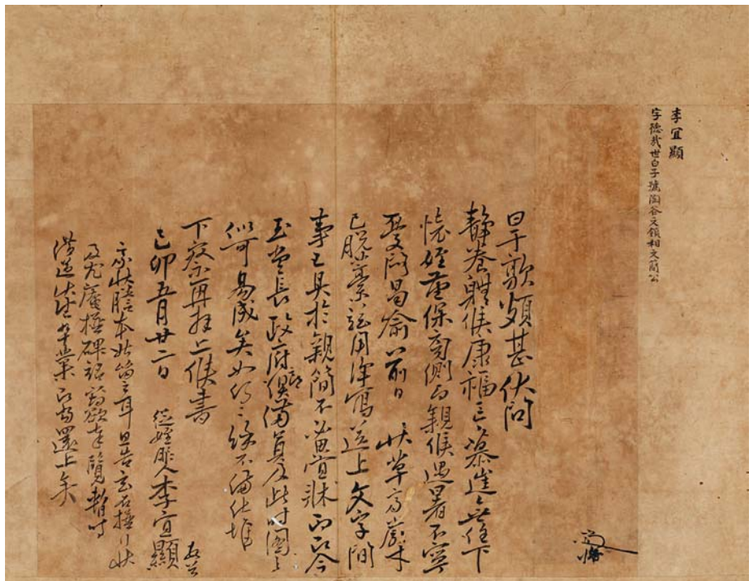
도곡 이의현 陶谷 李宜顯

용인龍仁, 덕재德哉/ 1669-1745

서간 書簡

1699년(기묘)
종이에 먹/ 가배접
31.3x40cm

₩ 400,000-1,200,000



不意, 先王考奄忽捐背, 伏惟哀痛摧裂, 何可堪居。尊丈淸贏之質, 衰年巨恙, 不瑕有大毁損耶。區區哀念, 無以形言。聖通來傳, 紺泉赴科, 可知襄禮之已過矣。萬事千古, 無由一哭, 人生本自如此耶。抑山川遼絶, 非人之所能爲耶。鏞, 衰朽比昨年尤甚, 喪威以來, 只切孔懷之痛, 尙復何言。科事付之一笑而已。丁寧然諾之事無難, 違舛吾意, 卽必有風入之歎矣。此恥, 必當一泄, 須與旗叔, 專心做初終場功夫, 以俟後科焉, 必有一湔之日也。祠簾三部, 靑竹三十, 果能踐約否。伯夏相報, 未可必, 須探問船發之日, 用力輸載於船中, 俾無未及之歎, 如何。此等處, 可以觀人, 幸勿泛也。此是轉便, 都略不宣。壬午三月廿二日。

戚記 若鏞 頓首。

牧船如或不發, 則卽通于仁權, 覓船付送, 至可至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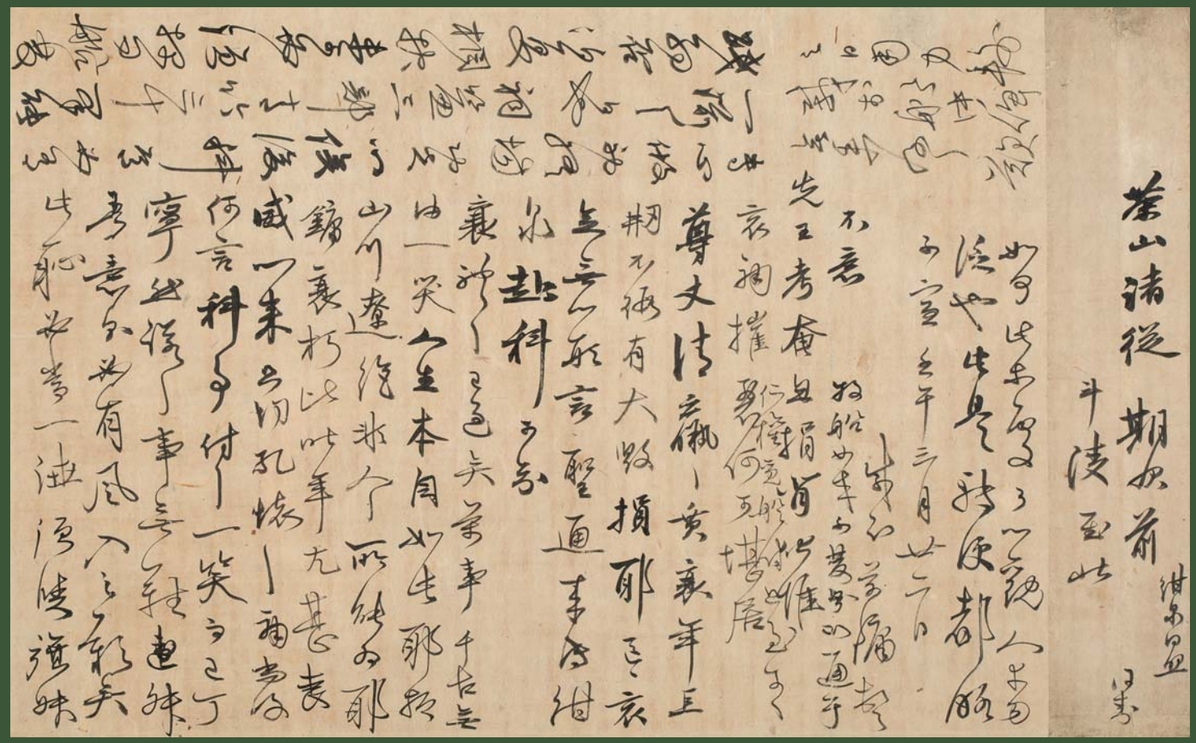
[皮封] 茶山諸從 期服前 紺泉同照 斗陵惠狀 謹封

뜻밖에도 조부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니, 슬픔에 가슴이 찢어질 듯하실 터인데 어찌 견디고 지내십니까. 존장尊丈께서는 본래 몸이 여위고 허약하신 데다 노년에 이처럼 큰 상을 당하셨으니, 건강이 크게 상하지는 않으셨는지 염려됩니다. 애통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루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통聖通이 와서 전하기를 감천紺泉(윤종심)이 과거를 보러 갔다고 하니, 장례를 이미 마쳤음을 알겠습니다. 만사가 영원히 지난 일이 되어버렸는데, 직접 찾아가 한 번 곡뫗도 하지 못했으니, 인생이란 본래 이런 것인지요. 아니면 산천이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인지요. 저 용鏞은 작년에 비해 몸이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엄중한 상사喪事를 당한 이래로 오직 뼈 저리는 혈육 잃은 슬픔만 사무칠 뿐이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과거시험에 관한 일은 그저 웃어넘길 따름입니다. 정중히 그러마하고 도와주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겠으나, 만일 내 뜻과 어긋나게 된다면 반드시 후회하고 탄식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일은 반드시 한 번 풀어야 할 것이니, 모름지기 기숙旗叔(윤종삼)과 함께 마음을 다하여 과거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여 다음 과거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이 치욕을 씻어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렴祠簾 세 벌과 청죽靑竹 서른 개는 과연 약속대로 마련하였습니까. 백하伯夏가 알려줄지는 확실치 않으니, 반드시 배가 떠나는 날을 알아보고 힘써 배에 실어 보내어 제때 보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사소한 일에서야말로 사람됨을 알아볼 수 있으니, 부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편지는 다른 곳을 거쳐 가는 인편에 부치는 것이므로 모두 다 적지 못합니다.

임오년(1822) 3월 22일
척기戚記 약용若鏞 돈수頓首

만약 목선牧船이 출발하지 않으면 곧 인권仁權에게 연락하여 다른 배를 구해 부쳐 보내도록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피봉] 다산茶山의 여러 종친께. 기복(期服) 중인 분 앞에 올리며, 감천紺泉(윤종심)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삼가 봉합니다.



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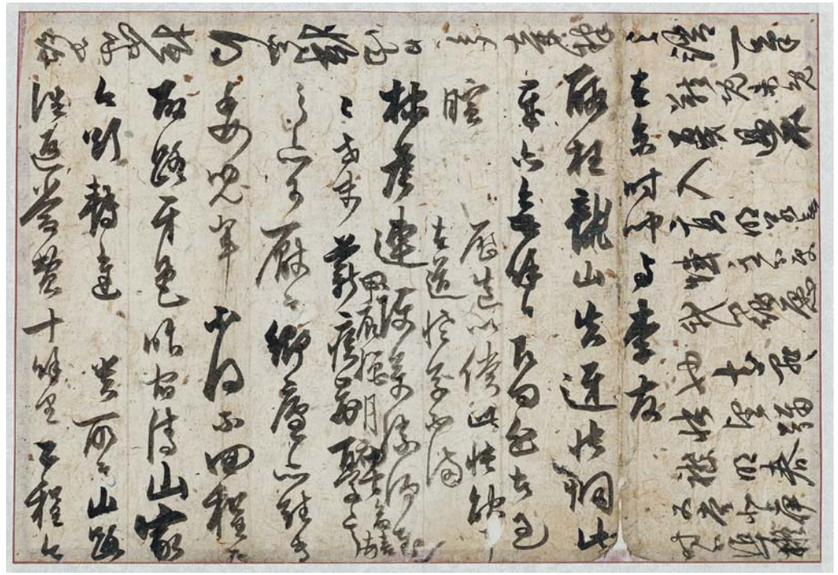
다산 정약용 茶山 丁若鏞

나주羅州, 미용美鏞/ 1762-1836

서간 書簡

1822년(임오)
종이에 먹/ 액자
29.2x47.5cm

₩ 10,000,000-30,000,000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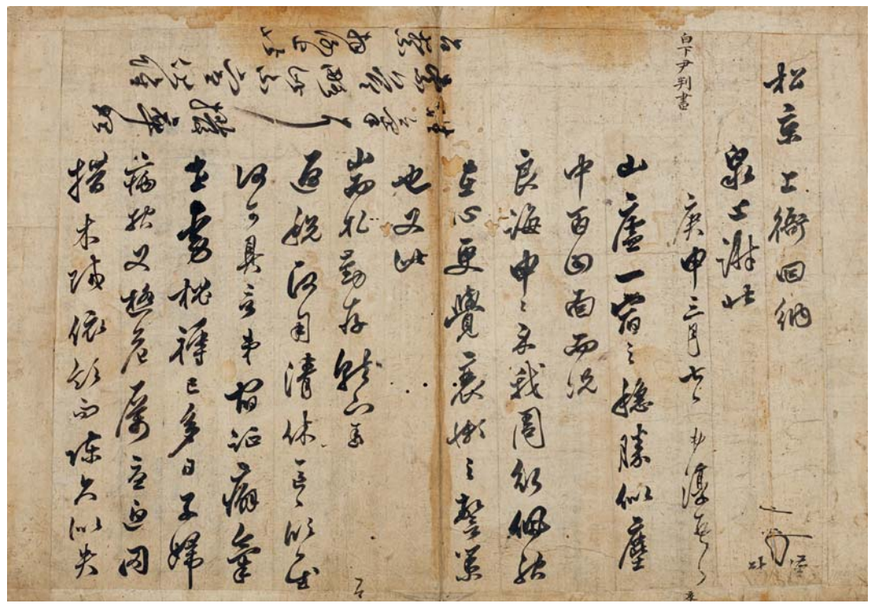
산천 김명희 山泉 金命喜

경주慶州, 성원性源/ 1788-1857

서간 書簡

1844년(갑진)
종이에 먹/ 가배접
24.5x35.5cm

₩ 500,000-1,400,000



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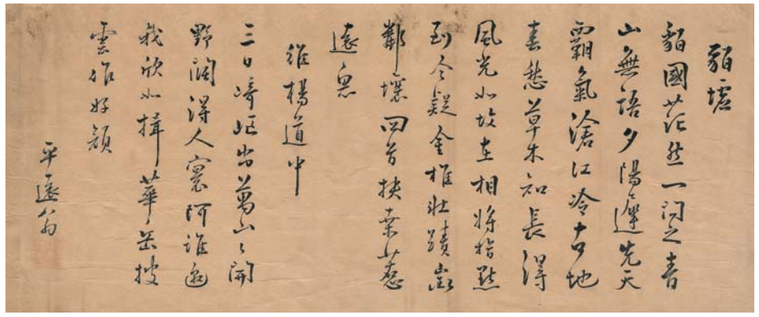
백하 윤순 白下 尹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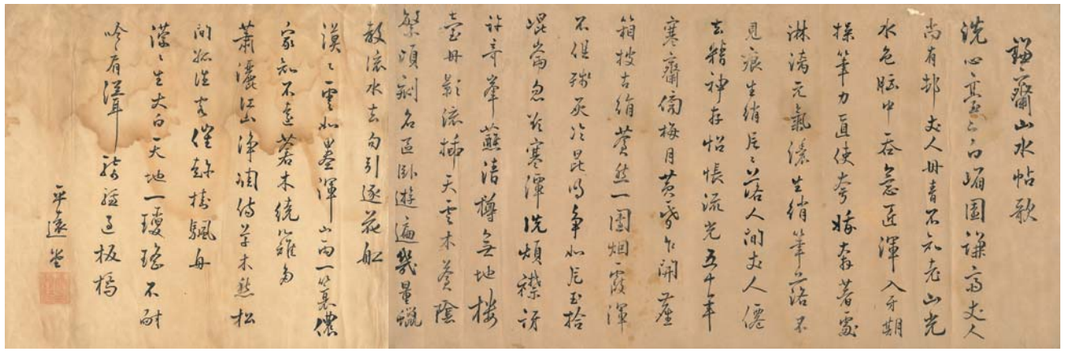
해평海平, 중화仲和/ 1680-1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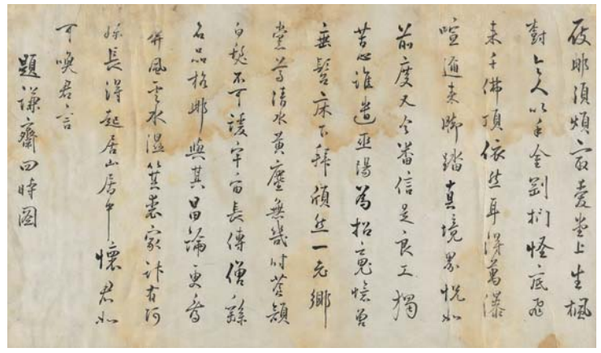
서간 書簡

1740년(경신)
종이에 먹/ 가배접
39.2x57cm

₩ 600,000-1,500,000







020

평원 이우진 平遠 李羽晉

전주全州, 성익聖翼/ 1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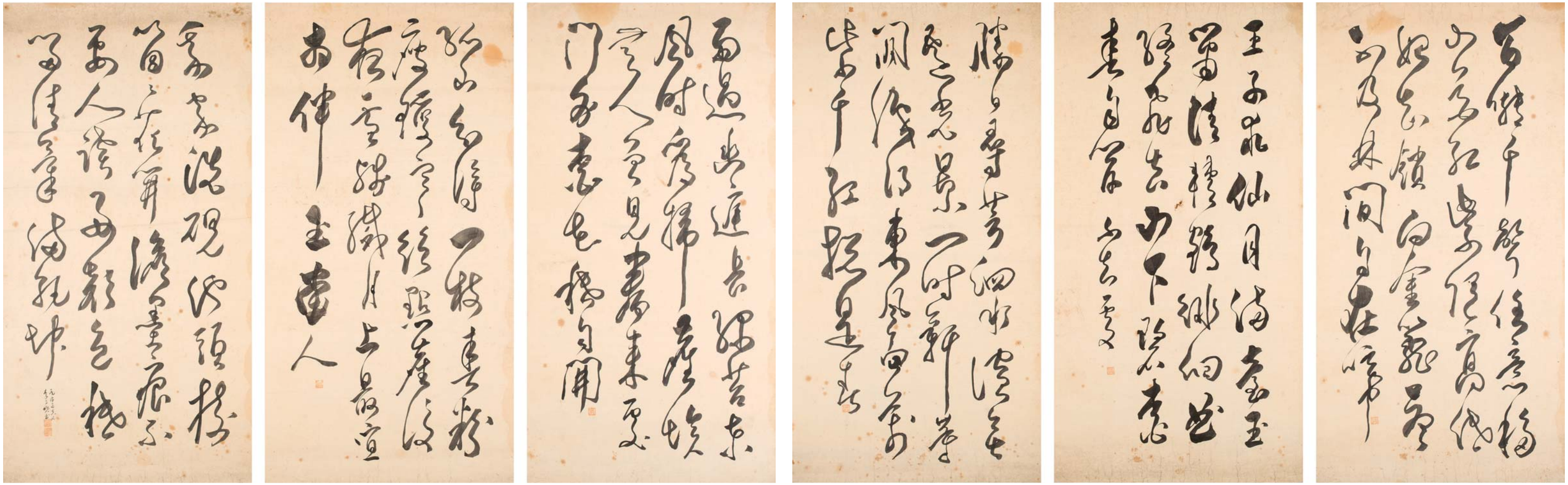
시고 詩稿 외

종이에 먹/ 가배접
28.6x69.6cm 외

₩ 1,000,000-2,300,000

평원 이우진이 여러 편의 한시와 시문을 행초서로 쓴 작품이다. 산수의 풍경과 계절의 변화, 옛 그림에 대한 감상, 세월의 흐름에 대한 감회 등을 소재로 한 글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겸재산수첩가謙齋山水帖歌」, 「제겸재사시도題謙齋四時圖」 등의 제목이 확인된다.

「겸재산수첩가」는 겸재 정선의 산수화를 소재로 한 장편 시로, 산과 물, 기암과 수목 등 그림 속에 펼쳐진 경관을 묘사하고 화가의 필력을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에는 그림을 감상하며 실제 산수를 유람하는 듯한 경험을 뜻하는 '와유臥遊'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제겸재사시도」는 겸재가 그린 사계절의 산수화에 제하여 지은 시로, 자연의 풍경과 그림에 대한 감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산천의 경관을 바라보며 느낀 감회와 자연의 정취를 읊은 시문들이 함께 실려 있다.



021

창암 이삼만 蒼巖 李三晩

전주全州, 윤원允遠/ 1770-1847

시고 6폭병풍 詩稿六幅屛風

1826년(병술)
종이에 먹/ 병풍
119.5x61.8cmx6

₩ 6,000,000-14,000,000



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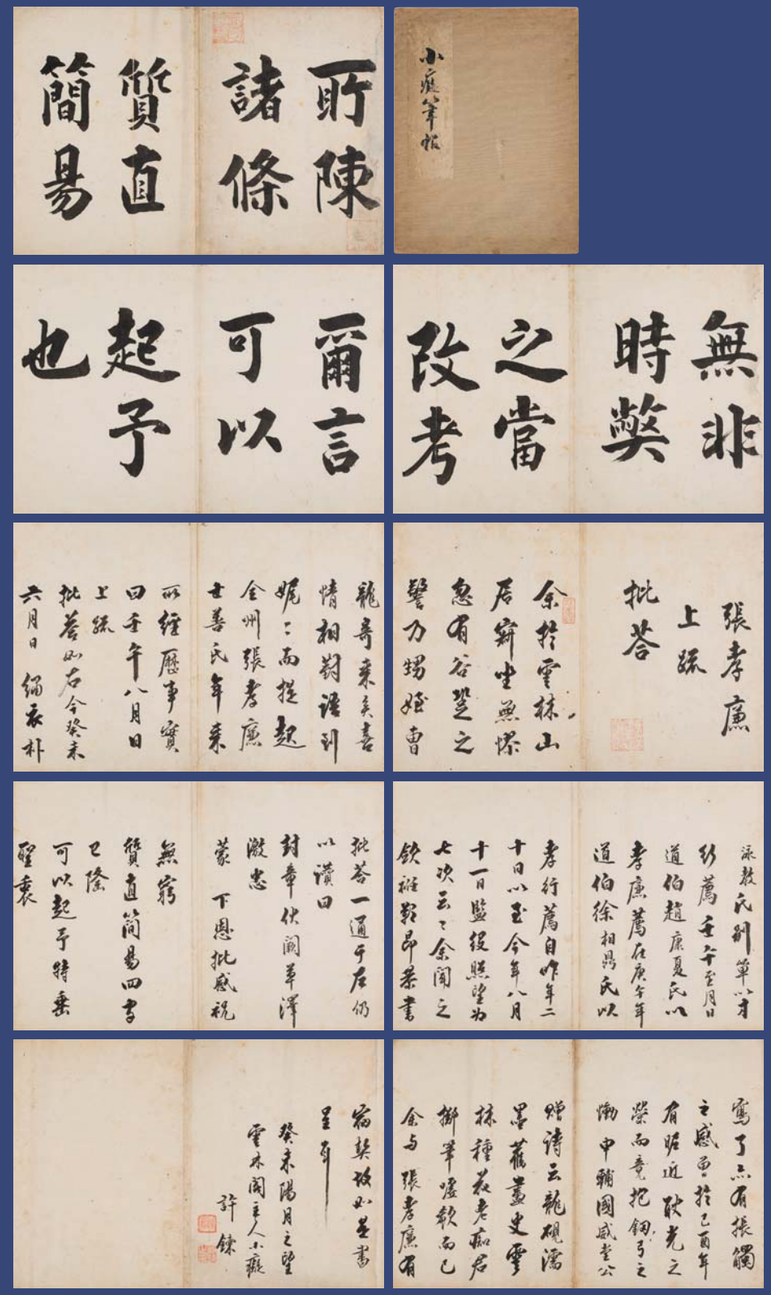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 필

경주慶州, 원춘元春/ 1786-1856

심석 心石 : 편액

나무에 서각·채색/ 편액
29x83x6cm

₩ 3,000,000-7,000,000



023

소치 허련 小癡 許鍊

양천陽川, 정일精一/ 1808-1893

소치필첩 小癡筆帖

1883년(계미)
종이에 먹/ 첩
32.5x24.4cm(1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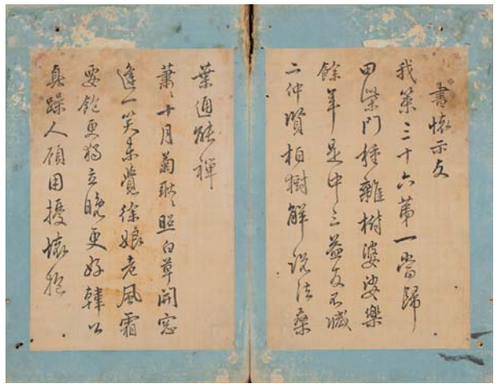
₩ 3,500,000-7,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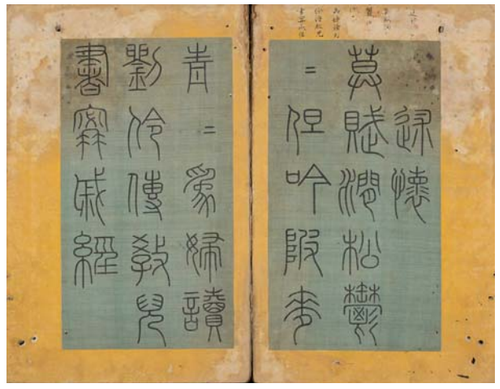
이 서첩은 소치 허련이 장효렴張孝廉이 올린 상소에 대한 임금의 비답批答과 그에 관한 기록을 적은 것이다.
서첩 앞부분에는 '所陳諸條 質直簡易 無非時弊之當改考 爾言可以起予也'라는 비답이 실려 있다. 이는 상소에서 제시한 여러 조항이 질박하고 간명하며 당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검토할 만한 내용이고, 그 말이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는 뜻이다.
이어 허련이 장효렴의 행적과 상소에 얽힌 사연을 기록하였는데, 여기에는 장효렴이 효행孝行으로 천거된 경위와 감역監役 후보로 여러 차례 추천된 사실 등이 서술되어 있으며, 임금의 비답 가운데 '質直簡易'와 '可以起予'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감회를 밝히고 있다.
서첩 말미에는 '癸未陽月之望 雲林閣主人小癡許鍊 계미년 음력 10월 보름, 운림각 주인 소치 허련'이라는 관서와 인장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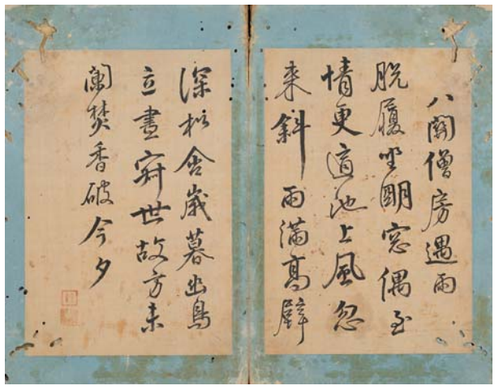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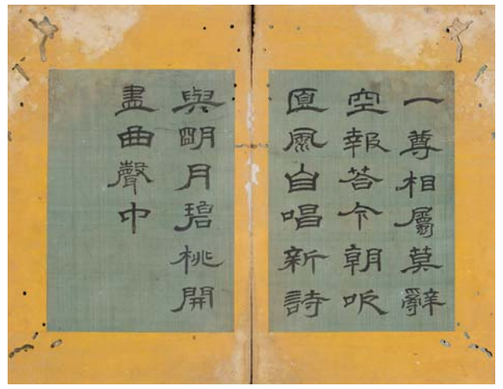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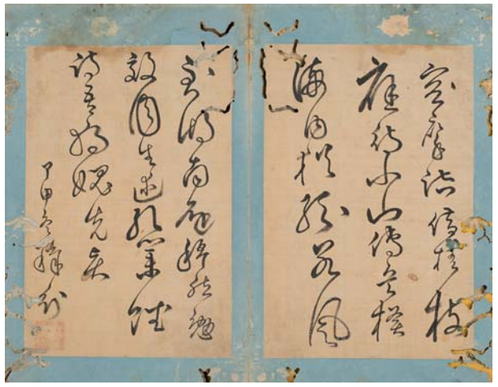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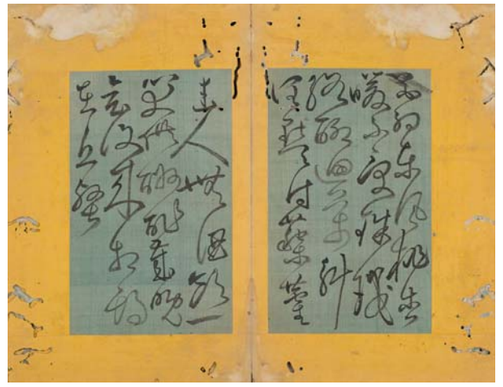












024

송하 조윤형 松下 曺允亨

창녕昌寧, 치행穉行/ 1725-1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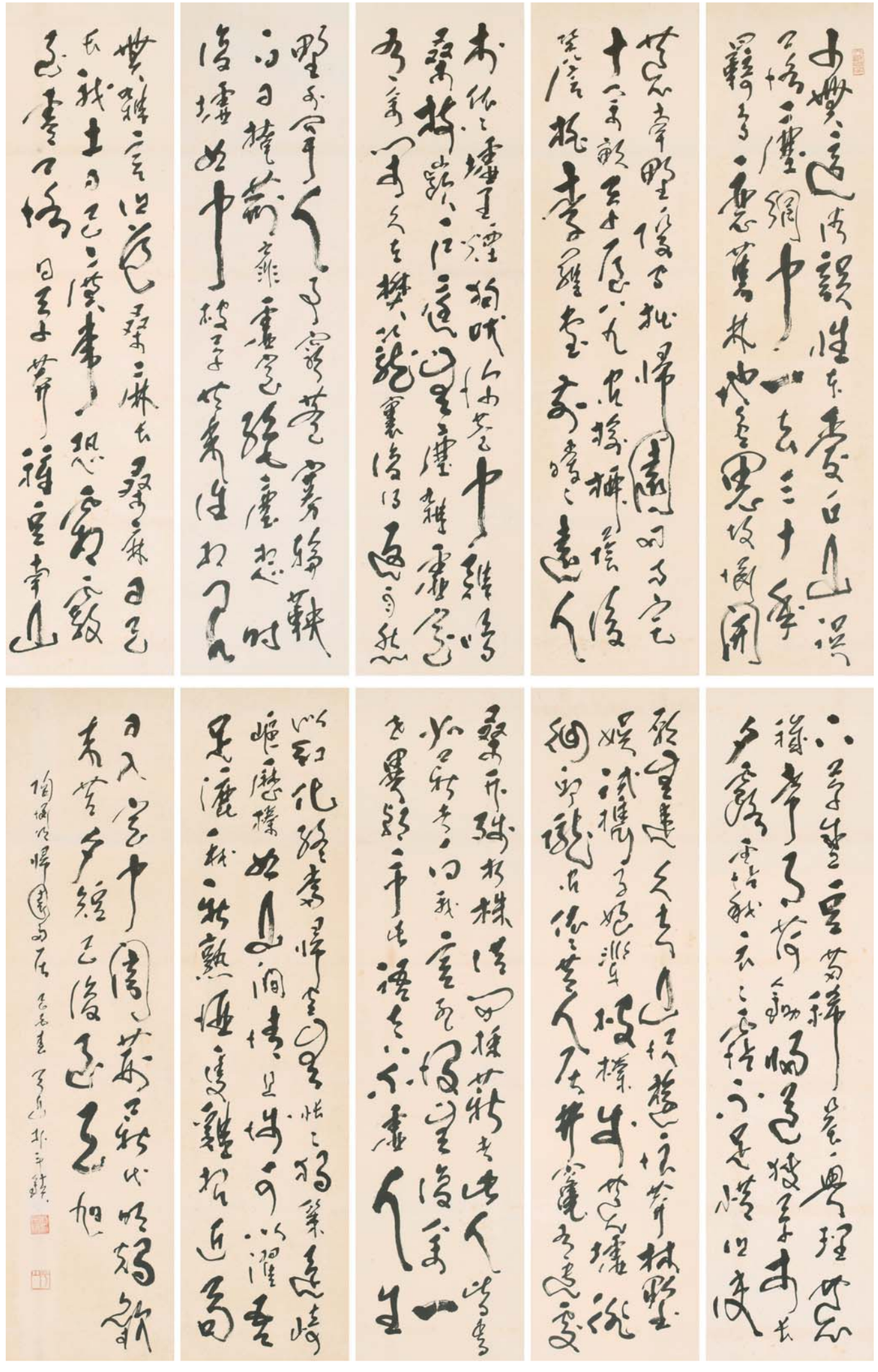
송하첩 松下帖

비단에 먹/ 첩
32.5x21cm(30면)

₩ 3,000,000-7,000,000

송하 조윤형松下 曺允亨은 조선 영 · 정조 연간에 활동한 문신이자 서예가로, 해서 · 행서 · 초서 · 전서 · 예서 등 다양한 서체에 능하였으며 특히 초서와 예서로 이름을 떨쳤다. 그는 글씨로 유명한 조명교曺命敎의 아들로, 백하 윤순白下 尹淳을 장인으로 두었으며 원교 이광사圓嶠 李匡師와 함께 조선 후기 서예의 흐름을 이어간 인물이다. 그의 해서 대자는 안진경顔眞卿과 유공권柳公權의 서법을, 소자는 진晉의 서법을 익혔으며, 전서는 이양빙李陽冰을, 행서와 초서는 윤순과 이광사의 서풍을 본받아 여러 서체를 두루 구사하였다. 정조의 서체반정書體反正에도 참여하였으며, 궁중의 각종 행사에 서사관書寫官으로 임명되어 금석문과 편액 등을 쓰는 등 당대의 대표적인 명필로 활동하였다.

출품작은 총 30면에 걸쳐 다양한 서체로 시문을 쓴 필첩으로, 해서 · 행서 · 초서 · 전서 등 여러 서체를 통해 조윤형의 폭넓은 서풍을 살펴볼 수 있다. 단정한 자형의 해서부터 필획의 연결과 변화가 두드러지는 행초서, 고졸한 분위기의 전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필법이 나타나며, 특히 올챙이 모양의 필획을 특징으로 하는 과두전科斗篆이 이채롭다. 일부 면에는 청색 바탕에 금색으로 글씨를 쓰고, 다른 면에는 미색 비단 위에 먹으로 글씨를 써서 서체와 바탕색에 따른 시각적인 변화를 주었다. 필첩 곳곳에는 총 6과의 인장이 남아 있다.



025

혜산 박두진 兮山 朴斗鎭

경주慶州/ 1916-1998

귀거래사 10폭병풍 歸去來辭十幅屛風

1993년(계유)
종이에 먹/ 병풍
129.5×33cm×10

₩ 1,500,000-3,500,000



026

초정 김상옥 艸丁 金相沃

김해金海/ 1920-2004

선덕대왕신종지명 聖德大王神鍾之銘·
도자 陶瓷 스케치

종이에 먹/ 액자
16x58.2cm, 13.5x41cm

₩ 600,000-1,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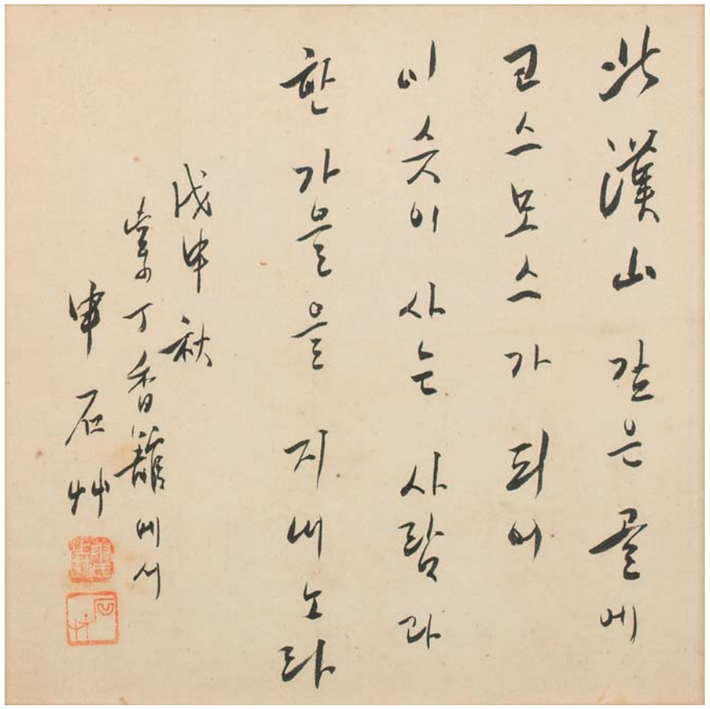


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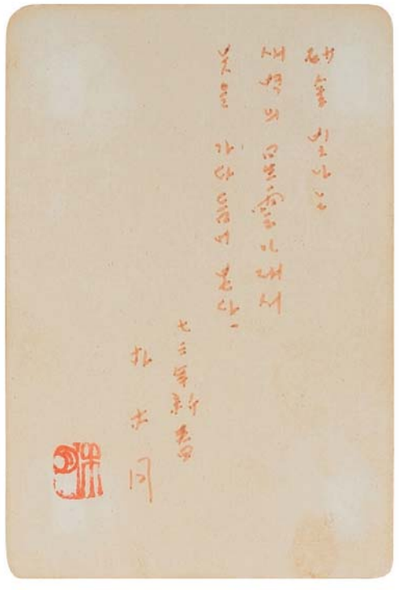
신석초 申石艸
고령高靈/ 1909-1975
박목월 朴木月
경주慶州/ 1915-1978
박용래 朴龍來
밀양密陽/ 1925-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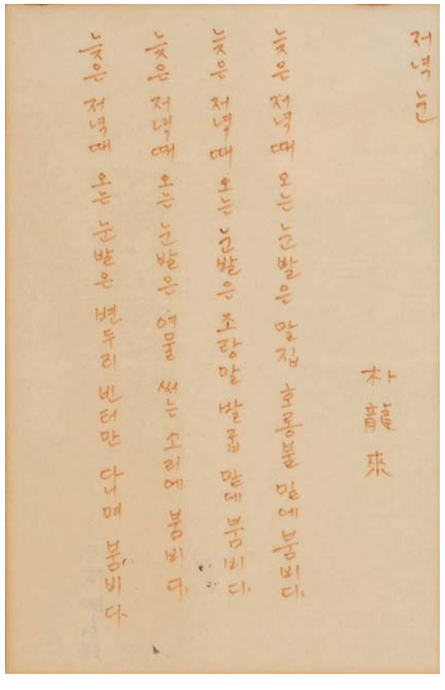
시 詩 3점
1968년(무신),1973년, 미상
종이에 펜·먹/ 액자
26x26cm, 15.6x10.5cm, 22.3x14.5cm

₩ 500,000-1,200,000


北漢山 맑은 물에
코스모스가 되어
이슷이 사는 사람과
한 가을을 지내노라

戊申 秋
崇丁 香龍에서
申石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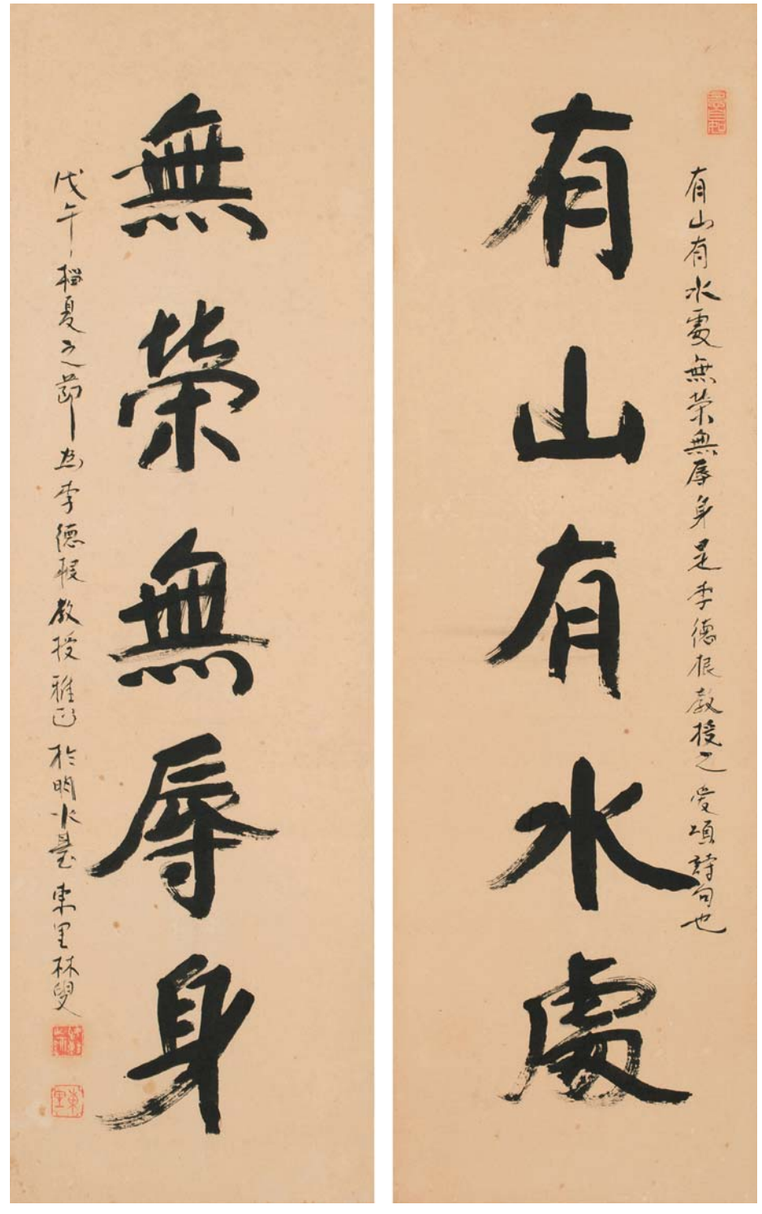



저녁눈

눚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붐비다.
눚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발굽 밑에 붐비다.
눚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여물 써는 소리에 붐비다.
눚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붐비다.

朴龍來

有山有水處 無榮無辱身
산 있고 물 있는 곳, 영화도 치욕도 없는 몸이라.


有山有水處無榮無辱身是季德根敎授之受頃詩句也
戊午 初夏之節 爲季德根敎授雅正 於明水書 栗里林樂

028

동리 김시종 東里 金始鍾
선산善山/ 1913-1995

유산 有山·무영 無榮 대련
1978년(무오)
종이에 먹/ 가리개
113.5x34.7cmx2

₩ 500,000-1,300,000

029

송탁구성궁비 宋拓九成宮碑 탁본첩

종이에 탁본, 종이에 먹/ 첩
38.5x23cm(46면)

₩ 20,000,000-40,000,000

『구성궁예천명九成宮醴泉銘』은 당나라의 명필 구양순歐陽詢(557-641)이 쓴 비문으로, 632년(당 태종 정관 6년)에 세워졌다. 당 태종이 피서지인 구성궁에서 예천醴泉이라 불리는 샘물을 발견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비석으로, 위징魏徵이 글을 짓고 구양순이 글씨를 썼다. 구양순의 만년 서풍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정교하고 엄격한 결구와 힘 있는 필획, 균형 잡힌 조형미를 갖추어 역대 해서楷書의 전범으로 높이 평가받아 왔다.

『구성궁예천명』은 오랫동안 서예 학습의 중요한 법본으로 여겨졌으며, 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탁본과 번각본이 제작되었다. 특히 송대의 초기 탁본은 원비의 필획과 자형을 비교적 온전하게 전하는 자료로 중시되었으며, 명 · 청대에는 금석학과 서화 수장 문화의 발달에 따라 문인과 수장가들 사이에서 널리 감상되고 수집되었다.

본 첩은 『구성궁예천명』의 글씨의 탁본을 수록한 서첩으로, 말미에는 위창 오세창葦滄 吳世昌(1864-1953)의 글이 첨부되어 있다. 오세창은 글에서 명대의 문인 송렴宋濂(1310-1381), 대표적인 서화 수장가 항원변項元汴(1525-1590), 청대의 학자이자 관료인 왕홍서王鴻緖(1645-1723), 왕용신王用臣(생몰년 미상) 등의 수장인을 언급하고, 청대 서예가 왕주王澍(1668-1739)가 '송탁구성궁비宋拓九成宮碑'라고 쓴 제첨題簽이 있음을 기록하였다.

또한 일본의 서예가이자 서양화가인 나카무라 후세쓰中村不折(1866-1943)의 글도 남아 있다. 그는 『구성궁예천명』의 '伯禹絕後' 다음에 나오는 '光' 자와 '櫛風沐雨'의 '櫛' 자에 나타나는 결손 상태를 송탁본의 특징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아울러 필획이 맑고 분명하며 글자의 기세가 웅건하다고 평하면서 서예의 귀중한 보물로 칭송하였다.

오세창은 한국 근대의 대표적인 서예가이자 금석학자로, 『근역서화징槿域書畫徵』을 편찬하는 등 서화사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나카무라 후세쓰 역시 중국의 서예와 금석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인물이다. 본 첩은 구양순 해서의 대표작을 수록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서예가이자 금석 연구자인 오세창과 나카무라 후세쓰의 글이 함께 전해져 동아시아의 법첩 감상과 수장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030

남정 박노수 藍丁 朴魯壽

밀양密陽/ 1927-2013

산수 山水 : 금당 琴堂 선생께

1967년(정미)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2x188.5cm

₩ 2,000,000-5,000,000

青山有時隱 白雲隨意還

푸른 산은 때때로 자취를 감추고
흰 구름은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오네.



031

운보 김기창 雲甫 金基昶

김해金海/ 1913-2001

석류와 새

1976년(병진)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60.8x67.1cm

₩ 2,200,000-4,500,000



작품수록처 |
『운보 김기창 전작도록 Ⅲ』, (API, 1994), p.82
「신세계」 1979년 10월 표지에 게재



032

이왈종 李曰鍾

1945-

호박

1978년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63x63cm

₩ 1,500,000-3,200,000



033

심산 노수현 心汕 盧壽鉉

광주光州/ 1899-1978

노송 老松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28.7x31.7cm

₩ 600,000-1,300,000



034

남정 박노수 藍丁 朴魯壽

밀양密陽/ 1927-2013

무제 無題

1959년(기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1.4x64.6cm

₩ 1,200,000-2,500,000



035

산정 서세옥 山丁 徐世鈺

달성達城/ 1929-2020

복숭아 桃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50.5x60.5cm

₩ 1,000,000-2,500,000



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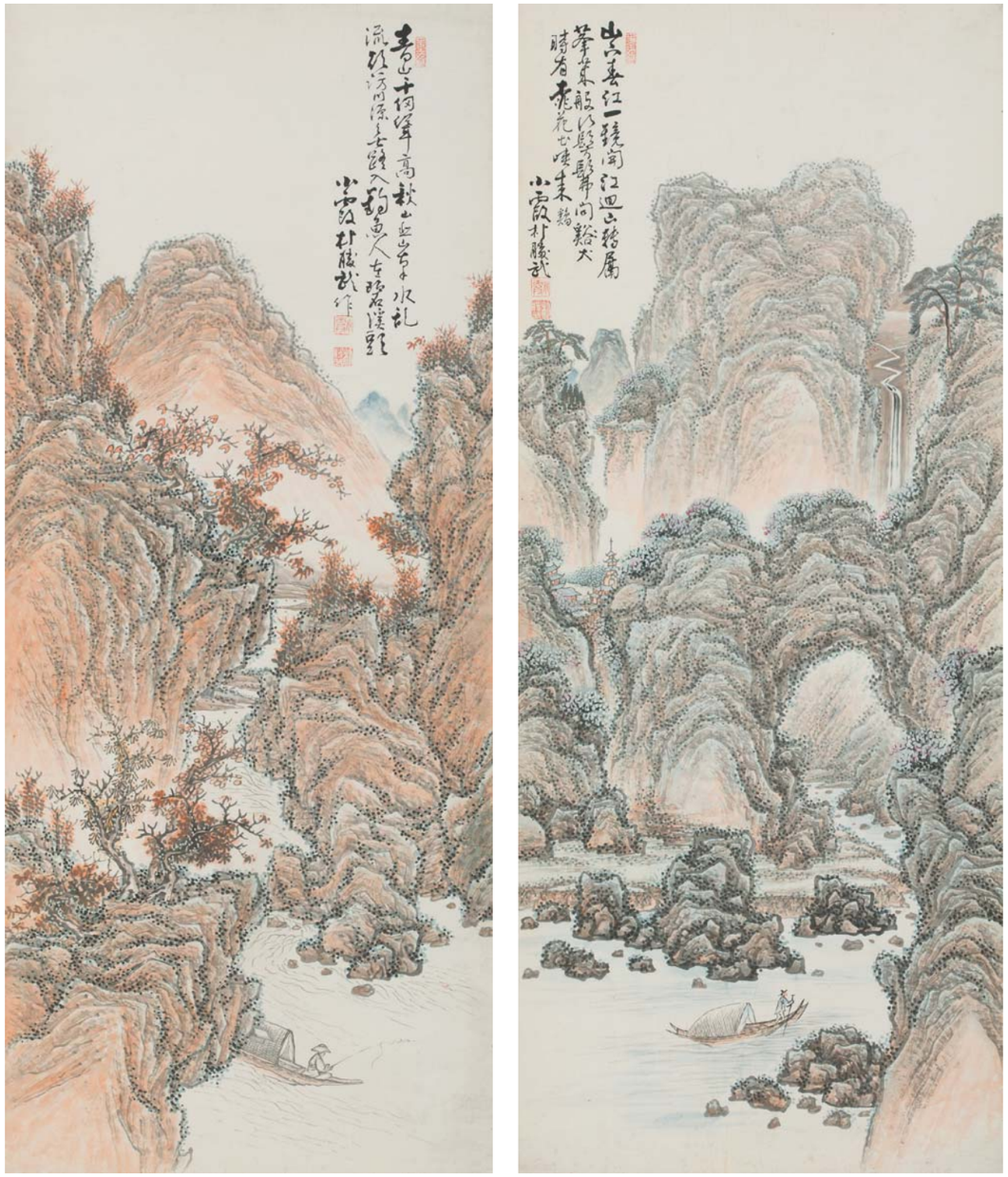
이당 김은호 以堂 金殷鎬

상산商山/ 1892-1979

죽림칠현 竹林七賢

1977년(병진)
비단에 수묵담채/ 액자
40.4x132.3cm

₩ 3,000,000-7,000,000



037

심향 박승무 深香 朴勝武

반남潘南/ 1893-1980

추경 秋景·하경 夏景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68.5x48.7cmx2

₩ 1,500,000-3,200,000



038

제당 배렴 霽堂 裵濂

성산星山/ 1911-1968

소상규월 瀟湘叫月

1959년(기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6.5x56.5cm

₩ 400,000-1,000,000



039

소정 변관식 小亭 卞寬植

초계草溪/ 1899-1976

강촌우후 江村雨後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2.7x46cm

₩ 800,000-2,000,000

松下問童子 言師採藥去
祇在此山中 雲深不知處

소나무 아래에서 동자에게 물으니,
스승은 약초를 캐러 가셨다고 하네.
이 산속에 계시기는 하나,
구름이 깊어 계신 곳을 알 수 없네.



040

백련 지운영 白蓮 池雲英

충주忠州/ 1852-1935

고사인물 高士人物

1925년(을축)
비단에 수묵담채/ 액자
34.7x141cm

₩ 1,300,000-3,500,000



041

월전 장우성 月田 張遇聖

단양丹陽/ 1912-2005

월매 月梅

1983년(계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69x135cm

₩ 2,500,000-5,000,000



042

무여 문봉선 無如 文鳳宣

1961-

항아리와 매화

2011년(신묘)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4.5x44.8cm

₩ 500,000-1,500,000



043

소산 박대성 小山 朴大成

1945-

나팔꽃 牽牛花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유리없음)
68.5x48.7cm

₩ 1,000,000-2,500,000



044

소산 박대성 小山 朴大成

1945-

금강산 金剛山

2005년(을유)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51x69cm

₩ 6,000,000-14,000,000



045

심산 노수현 心汕 盧壽鉉

광주光州/ 1899-1978

추강어은 秋江漁隱

비단에 수묵담채/ 액자

32.5x126.5cm

₩ 1,500,000-3,200,000

046

춘곡 고희동 春谷 高羲東

제주濟州/ 1886-1965

목동귀가 牧童歸家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3.5x35.5cm

₩ 600,000-1,500,000



047

청전 이상범 靑田 李象範

전주全州/ 1897-1972

추연첩장 秋烟疊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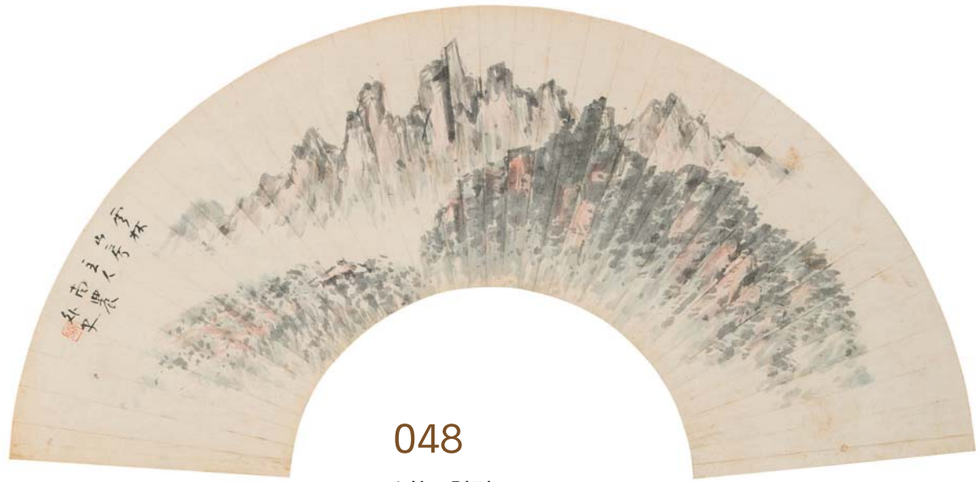
1928년(무진)
비단에 수묵담채/ 액자
125.3x41.3cm

₩ 2,500,000-5,000,000



秋生黃葉聲中雨 人在淸溪水上樓

가을은 누렇게 물든 낙엽에 빗소리 들리는 가운데 찾아오고,
사람은 맑은 시냇물 위에 세워진 누각에 있네.



048

남농 허건 南農 許楗

양천陽川/ 1907-1987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3x45cm

₩ 600,000-1,500,000

但顧淸秋長夏日 江湖常放來家船

다만 맑은 가을과 긴 여름날을 돌아보며,
강호에는 언제나 미가米家의 배를 띄우네.



049

의재 허백련 毅齋 許百鍊

양천陽川/ 1891-1977

월하주유 月下舟遊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4x51.5cm

₩ 800,000-1,800,000



050

청전 이상범 靑田 李象範

전주全州/ 1897-1972

설촌보희 雪村報喜

1966년(병오)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42.5x128cm

₩ 23,000,000-50,000,000

청전 이상범은 한국 근대 산수화를 대표하는 화가로, 전통적인 산수화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연과 농촌 풍경을 독자적인 화풍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나지막한 야산과 초가, 농부 등 친숙한 소재를 통해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정취를 담아냈으며, 1950년대 이후에는 짧은 필선과 미점을 중첩하는 특유의 화법을 발전시켜 이른바 '청전양식'을 완성하였다.

출품작은 눈 덮인 산촌의 풍경을 그린 작품으로, 화면 우측에 '丙午新正'이라는 관서가 있어 1966년 새해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완만하게 이어지는 산등성이를 따라 초가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겨울나무와 울타리가 드문드문 배치되어 있다. 화면 오른쪽에는 짐을 지고 마을로 향하는 인물이 작게 묘사되어 있고, 초가 지붕에는 까치 여러 마리가 앉아 있다.

산등성이와 수풀은 짧고 거친 필선과 미점을 반복하여 묘사하였으며, 나뭇가지와 초가의 지붕은 짙은 먹으로 강조하였다. 눈이 쌓인 부분은 별도의 채색 없이 종이의 흰 바탕을 그대로 남기고, 하늘에는 옅은 먹을 입혀 설경과 대비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처럼 여백과 먹의 농담을 활용하여 겨울 산촌의 차분한 분위기를 나타냈다.

화제로 쓰인 '설촌보희雪村報喜'는 눈 덮인 마을에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뜻으로,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진 까치의 모습과 연결된다. 고요한 설경 속에 까치를 배치하여 화제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소박한 산촌의 정취와 생동감을 함께 담아낸 작품이다.



051

의재 허백련 毅齋 許百鍊 **화**
양천陽川/ 1891-1977
소전 손재형 素荃 孫在馨 **제**
밀양密陽/ 1903-1981

사인암 舍人巖 : 합작
1966년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63x32.5cm

₩ 1,200,000-2,800,000



작품수록처 | 『의재 허백련』, 호암미술관, 1991, 도47



참고도판 | 1991년 4월 24일 중앙일보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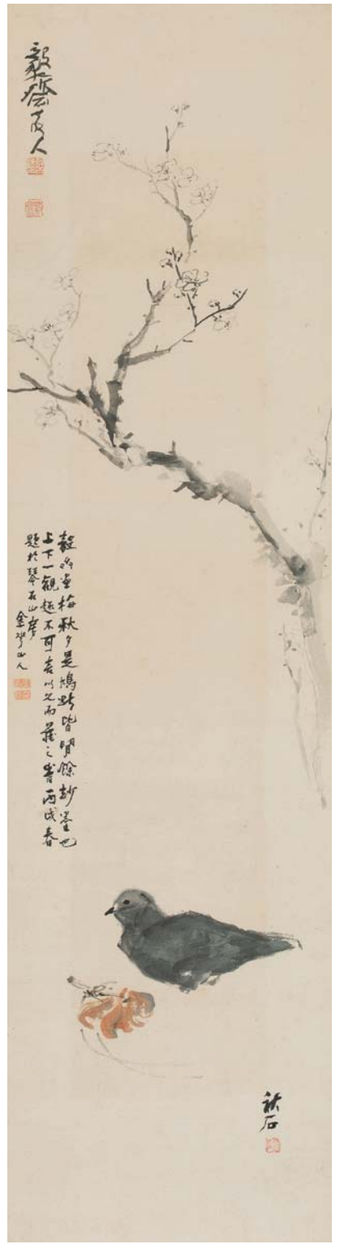


052

고우 최린 古友 崔麟
해주海州/ 1878-1958

묵란 墨蘭
종이에 수묵/ 액자
136.2x33.5cm

₩ 500,000-1,200,000



053

의재 허백련 毅齋 許百鍊
양천陽川/ 1891-1977
추석 秋石 **화**
?-?
화산 김일 華山 金鎰 **제**
?-1934이후

매화와 비둘기 : 합작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15.5x30cm

₩ 500,000-1,300,000

054

작가미상

노안 蘆雁

비단에 수묵담채/ 액자
24.6x11.5cm

₩ 300,000-1,000,000



055

작가미상

게 蟹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9.8x27.6cm

₩ 600,000-1,400,000





056

묵로 이용우 墨鷺 李用雨

경주慶州, 창윤蒼潤/ 1904-1952

추경 秋景

1933년(계유)
비단에 수묵담채/ 액자
121.5x40.2cm

₩ 1,000,000-2,500,000



057

심향 박승무 深香 朴勝武

반남潘南/ 1893-1980

만산홍엽 滿山紅葉

1976년(병진)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64x125cm

₩ 2,500,000-5,500,000

058

내고 박생광 乃古 朴生光

밀양密陽/ 1904-1985

화조영모 10폭병풍 花鳥翎毛十幅屛風

종이에 수묵담채/ 가병풍
128x32.2cmx10

₩ 6,000,000-14,000,000





059

남농 허건 南農 許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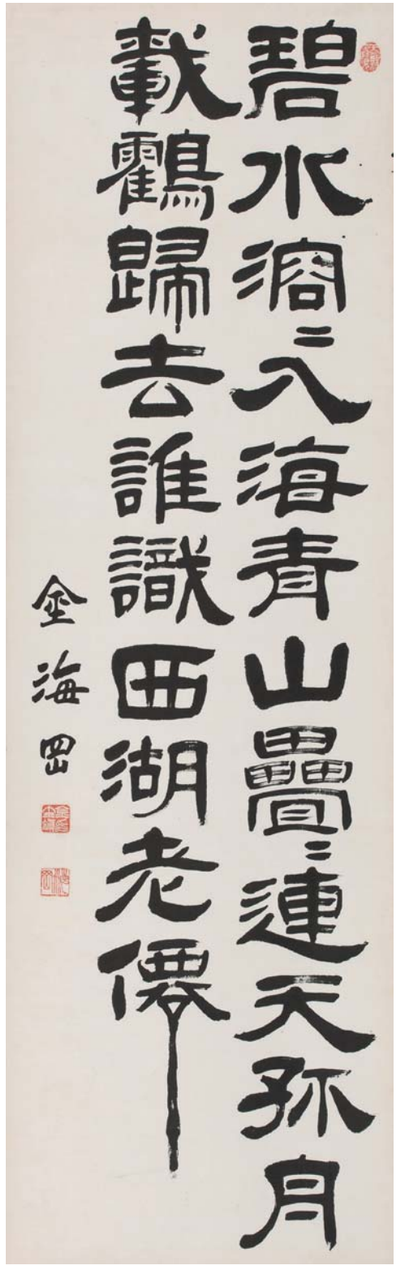
양천陽川/ 1907-1987

귀로 歸路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65x123cm

₩ 1,500,000-4,000,000





060

해강 김규진 海岡 金圭鎭
남평南平, 용삼容三/ 1868-1933

묵모란 墨牡丹·시고 詩稿 2점
종이에 수묵·먹/ 족자
133.5x40.7cmx2

₩ 1,000,000-2,500,000

碧水溶溶入海 青山疊疊連天
孤舟載鶴歸去 誰識西湖老僊

푸른 물은 넘실넘실 바다로 흘러가고,
푸른 산은 첩첩이 이어져 하늘에 닿았네.
외로운 배에 학을 싣고 돌아가니,
누가 서호의 늙은 신선을 알아보랴.



061

몽인 정학교 夢人 丁學敎
나주羅州, 화경化境/ 1832-1914

묵죽 墨竹
종이에 수묵/ 족자
128.7x34.7cm

₩ 2,500,000-5,000,000



062

소치 허련 小癡 許鍊

양천陽川, 정일精一/ 1808-1893

연꽃 蓮花

종이에 수묵/ 액자
103.5x39cm

₩ 800,000-2,000,000

平池碧玉秋波瀅 綠雲擁扇青搖柄

잔잔한 연못에는 푸른 옥 같은
가을 물결 맑게 빛나고,
푸른 구름 같은 연잎은
부채를 펼친 듯 줄기를 흔드네.

063

무호 이한복 無號 李漢福

전의全義/ 1897-1944

수조 樹鳥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1x35cm

₩ 400,000-1,000,000



064

남천 송수남 南天 宋秀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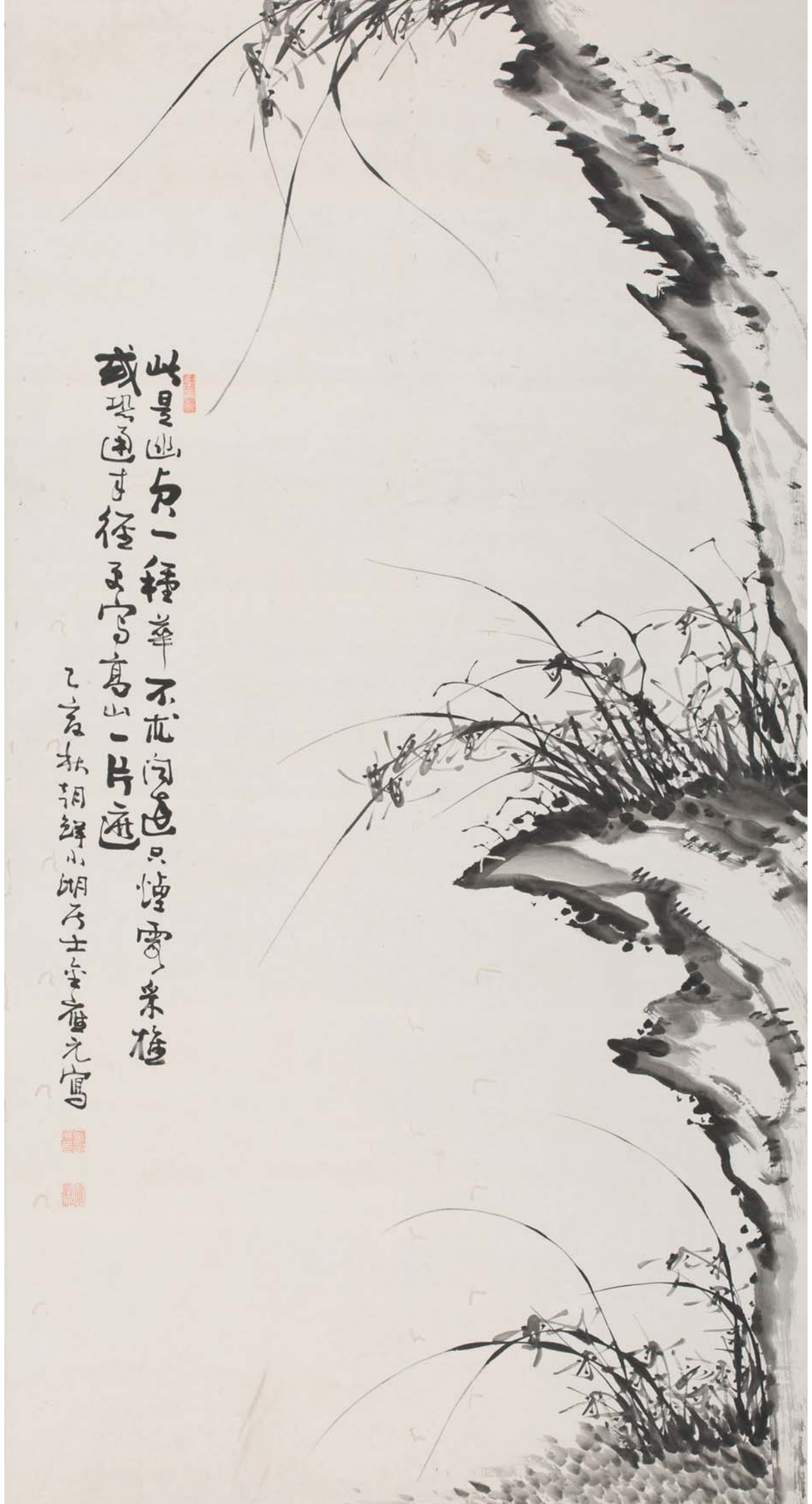
1938-2013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4x33cm

₩ 400,000-1,000,000





065

소호 김응원 小湖 金應元

김해金海, 석범錫範/ 1855-1921

괴석묵란 怪石墨蘭

1899년(기해)
종이에 수묵/ 족자
179x94.5cm

₩ 1,000,000-2,300,000

此是幽貞一種華 不求聞達只煙霞
采樵或恐通來經 秖寫高山一片遮

이것은 그윽하고 곧은 품성을 지닌 한 떨기 꽃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려 하지 않고
오직 안개와 노을을 벗 삼네.
나무꾼이 찾아오는 길이 생길까 염려되어,
높은 산을 한 겹 더 그려 그 길을 가려 놓았네.



066

해강 김규진 海岡 金圭鎭

남평南平, 용삼容三/ 1868-1933

괴석매조 怪石梅鳥

비단에 수묵담채/ 족자
149.3x39.3cm

₩ 1,200,000-2,500,000



067

심향 박승무 深香 朴勝武

반남潘南/ 1893-1980

화조 花鳥 2점

1964년(갑진)
종이에 수묵담채/ 가리개
105.5x39.1cmx2

₩ 700,000-1,500,000



068

춘곡 고희동 春谷 高羲東

제주濟州/ 1886-1965

송음독서도 松陰讀書圖

1944년(갑신)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6.6x138cm

₩ 1,500,000-3,000,000

069

위창 오세창 葦滄 吳世昌
해주海州, 중명仲銘/ 1864-1953

소정 변관식 小亭 卞寬植
초계草溪/ 1899-1976

관재 이도영 貫齋 李道榮
연안延安, 중일仲一/ 1884-1933

심산 노수현 心汕 盧壽鉉
광주光州/ 1899-1978

정재 최우석 鼎齋 崔禹錫
1899-1964

춘곡 고희동 春谷 高羲東
제주濟州/ 1886-1965

향당 백윤문 香塘 白潤文
임천林川/ 1906-1979

이당 김은호 以堂 金殷鎬
상산商山/ 1892-1979

서화합작 8폭병풍 書畵合作八幅屛風 : 지당 止堂 선생께
1933년(계유)
비단에 수묵담채, 먹/ 병풍
126x33cmx8

₩ 4,000,000-10,000,000

070

향당 백윤문 香塘 白潤文

임천林川/ 1906-1979

만폭동 萬瀑洞

1931년(신미)
비단에 수묵담채/ 액자
130.5x36.2cm

₩ 800,000-2,000,000





071

일관 이석호 一觀 李碩鎬

용인龍仁/ 1904-1971

옥혼빙정 玉魂冰精

1945년(을유)
종이에 수묵/ 액자
36.5x125.8cm

₩ 1,000,000-2,500,000





072

동강 정운면 東岡 鄭雲冕

연일延日/ 1906-1948

설경 雪景·하경 夏景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35.9x33.3cmx2

₩ 400,000-1,000,000



雪消晴幹寒餘白 月上疏枝淡似金

눈 녹아 갠 날의 나무줄기에는 차가운 흰빛이 아직 남아 있고,
성긴 가지 위로 달이 떠오르니 은은한 빛이 금빛과도 같구나.

073

청전 이상범 靑田 李象範

전주全州/ 1897-1972

대나무와 국화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14.7x63cm

₩ 3,000,000-6,000,000



074

춘초 지성채 春艸 池盛彩

충주忠州/ 1899-1980

사계산수 10폭병풍 四季山水十幅屛風

1978년(무오)
종이에 수묵담채/ 병풍
121x31.7cmx10

₩ 1,200,000-3,000,000



075

운보 김기창 雲甫 金基昶

김해金海/ 1913-2001

산수 山水

1982년(임술)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5.5x51cm

₩ 800,000-2,000,000

076

남농 허건 南農 許楗

양천陽川/ 1907-1987

한강귀범 寒江歸帆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0x119.5cm

₩ 1,000,000-2,800,000





077

내고 박생광 乃古 朴生光

밀양密陽/ 1904-1985

웅시 雄視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41.7x65.5cm

₩ 600,000-1,400,000

078

이왈종 李曰鍾

1945-

풍경 風景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4.x42.5cm

₩ 1,000,000-2,500,000





079

우석 황종하 友石 黃宗河

부평富平, 동필東必/ 1887-1952

맹호 猛虎

비단에 수묵담채/ 액자
121.4x49.6cm

₩ 1,500,000-3,000,000



080

현암 정성원 玄菴 鄭成源

영일迎日/ 1881-1962

한산팔경 10폭병풍 韓山八景十幅屛風

비단에 수묵담채·먹/ 병풍
84x30.7cmx10

₩ 1,800,000-4,000,000



081

혜원 신윤복 蕙園 申潤福

고령高靈, 덕여德如/ 1758-1814

초석비금도 蕉石飛禽圖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97.5x36.1cm

₩ 55,000,000-100,000,000

혜원 신윤복은 조선 후기 도화서 화원 출신의 화가로, 세련된 필치와 감각적인 색채가 돋보이는 풍속화로 잘 알려져 있다. 풍속화뿐 아니라 산수화와 화조영모화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으며, 특히 산수화에서는 단원 김홍도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보여주었다.

출품작은 괴석과 파초 위로 날아가는 새 한 쌍을 그린 화조도로, 유복렬 편저의 『한국회화대관』 신윤복 편에 송은 이병직松隱 李秉直의 구장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신윤복의 화조영모화는 전래하는 작품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은 『한국회화대관』에 도판으로 소개되어 일찍부터 그 존재가 알려졌을 뿐 아니라, 근대의 저명한 서화 수장가인 이병직의 구장품이라는 전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높다. 특히 풍속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려진 작품이 적은 신윤복의 화조영모화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화면 하단에는 굴곡진 괴석과 넓은 잎을 펼친 파초를 배치하고, 상단의 넓은 여백에는 두 마리의 새를 그려 넣어 안정감 있는 구도에 생동감을 더하였다. 괴석은 짙은 먹선과 농담의 변화를 통해 복잡한 윤곽과 굴곡을 표현하고, 부분적으로 담묵과 청록색을 더해 입체감을 살렸다. 특히 괴석의 형태와 필묵 처리에서는 김홍도의 화풍과 통하는 면모가 엿보인다. 이에 비해 파초는 옅은 녹색의 담채와 섬세한 필선으로 잎맥과 주름을 묘사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화면 하단에는 붉은 줄기의 작은 풀과 꽃을 곁들여 색채의 변화를 주었다.

화면 우측 상단에는 다음과 같은 화제가 적혀 있다.

芭蕉得雨便欣然 終夜作聲清更妍

파초가 비를 맞으니 곧 기뻐하는 듯하고,
밤새 소리를 내니 그 소리가 더욱 맑고 아름답네.

비를 맞은 파초가 기뻐하는 듯한 모습을 의인화하고, 넓은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맑고 아름다운 소리로 표현한 시구이다. 이는 그림 속 파초의 싱그러운 녹색과 어우러져 비를 머금은 잎의 생동감을 더욱 강조한다.
화제 끝에는 '혜원蕙園' 이라고 서명하고 서명 아래에는 '시중時中' 주문방인을 찍었다.

이 작품은 화면 하단에 무게를 두고 상단에 넓은 여백을 남긴 대담한 구성과 괴석의 강한 필선, 파초의 부드러운 색채가 조화를 이룬다. 자연물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능숙한 필묵, 세련된 채색 감각을 통해 풍속화와는 또 다른 신윤복의 회화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작품수록처 | 유복렬, 『한국회화대관』, 문교원, 1969, p.584, 도판 No.400



082

차강 박기정 此江 朴基正

1874-1949

석란 10폭병풍 石蘭十幅屛風

종이에 수묵/ 병풍
129.4x32cmx10

₩ 1,200,000-3,500,000

083

몽인 정학교 夢人 丁學敎

나주羅州, 화경化境/ 1832-1914

괴석 怪石

1898년(무술)
종이에 수묵/ 액자
133x32.8cm

₩ 2,000,000-4,500,000



084

소재 이성린 蘇齋 李聖麟

전주全州, 덕후德厚/ 1718-1777

욱일호취 旭日豪鷲

비단에 수묵담채/ 족자
106x43.6cm

₩ 30,000,000-60,000,000

욱일호취도는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과 거센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 기암괴석에 매 한 마리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욱일旭日'은 떠오르는 해를, '호취豪鷲'는 위엄 있는 맹금을 뜻한다.
이처럼 바다 위로 솟은 바위에 매를 배치하고 태양과 구름, 파도 등을 함께 묘사한 그림을 해상응도海上鷹圖라고 한다. 해상응도는 18-19세기 조선 후기 영모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유형으로, 당시 궁중화원들이 제작한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예로부터 매는 날카로운 시력과 강인한 발톱을 지닌 맹금으로 용맹과 권위, 영웅의 기상을 상징하였다. 여기에 밝은 양기陽氣를 상징하는 떠오르는 태양을 더하여 사악한 기운과 재앙을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의미를 담았다. 이러한 그림은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세화歲畫로도 제작되었으며, 18세기 화원 정홍래鄭弘來의 작품이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횃대에 앉아 있거나 사냥을 위해 길들여진 매를 묘사한 가응도架鷹圖가 제작되었다. 반면 조선 후기에는 매를 자연 경관 속에 배치하여 강인한 기상과 상징성을 강조하는 작품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해상응도는 매의 사실적인 묘사에 바다와 바위, 태양 등 상징적인 자연 요소를 결합하여 영모화의 장식성과 상징성을 함께 보여주는 유형이다. 이성린 역시 매를 소재로 한 작품을 남겼으며, 그 사례로 유현재 소장의 〈월하송응도〉가 전한다.

출품작은 화면 상단에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는 붉은 태양을 배치하고, 그 아래로 높이 솟은 기암괴석과 매 한 마리를 수직적인 구도로 나타냈다. 매는 몸을 왼쪽으로 돌린 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부리와 황색 눈, 굽은 발톱 등 맹금의 특징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등과 가슴을 덮은 깃털은 각각의 형태를 구분하고 먹의 농담을 달리하여 겹겹이 포개진 질감을 나타냈으며, 길게 뻗은 날개와 꼬리깃 역시 가는 필선으로 정교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황색으로 채색된 두 발은 바위의 모서리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어 매의 굳건한 자세와 긴장감을 더욱 강조한다.
매의 사실적이고 정교한 묘사와 달리 바위와 파도는 보다 자유롭고 장식적인 필치로 표현하였다. 바위는 짙은 먹과 거친 필선을 중첩하여 험준한 표면과 입체감을 드러냈으며, 그 주위를 에워싼 파도는 청록색의 유려한 곡선과 반복적인 선묘로 나타냈다. 굽이치는 물결과 곳곳에서 솟구치는 포말은 바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는 한편, 높이 솟은 바위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매의 모습과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또한 화면 상단의 붉은 태양과 하단의 청록색 파도는 색채상의 대비를 이루며 화면에 생동감을 더한다.

출품작은 매의 사실적이고 정교한 묘사와 상징적인 자연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으로, 이성린의 숙련된 필치와 조선 후기 해상응도의 회화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참고도판 | 이성린, 〈월하송응도〉, 종이에 담채, 개인소장 (『대계조선통신사 6』, 2001, p.55)







085

화조 8폭병풍 花鳥八幅屛風

비단에 수묵담채/ 병풍
116.5x35.5cmx8

₩ 20,000,000-45,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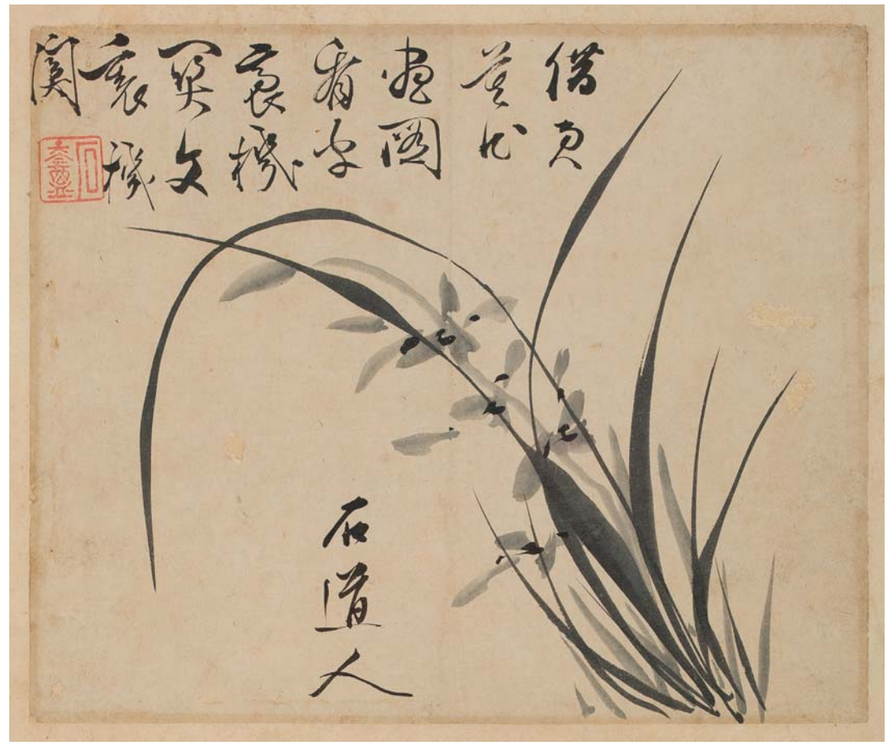


086

산수 6폭병풍 山水六幅屛風

종이에 수묵담채/ 가병풍
72x31.7cmx6

₩ 4,500,000-10,000,000



087

위당 신헌 威堂 申櫶

평산平山, 국빈國賓/ 1810-1884

묵란 墨蘭

종이에 수묵/ 액자
22x26.5cm

₩ 2,000,000-4,500,000

借君莫作畫圖看
文裏機關 字裏機關

그대여, 이 그림을 단순한 그림으로만 보지 마시게.
글과 글자 속에는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 있다네.



088

석지 채용신 石芝 蔡龍臣

평강平康, 대유大有/ 1848-1941

초상화 肖像畵

1935년(을해)
종이에 채색/ 액자
103.4x46.5cm

₩ 30,000,000-65,000,000

석지 채용신은 조선 말기부터 근대기에 걸쳐 활동한 대표적인 초상화가이다. 무관 출신으로 1900년 태조어진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칠곡군수와 정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1906년 관직에서 물러난 뒤 전라도 익산에서 금마산방金馬山房을 운영하며 본격적으로 초상화 제작에 전념하였고, 1923년경 정읍으로 공방을 옮겨 채석강도화소蔡石江圖畫所를 운영하였다. 그는 전통 초상화법을 바탕으로 서양화법과 사진의 표현 요소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하였으며, 인물의 용모와 특징을 사실적이고 정밀하게 묘사하는 초상화를 다수 남겼다.

출품작은 석지 채용신이 그린 전신좌상의 남성 초상화이다. 화면 좌측에 '乙亥季春上澣嘉善大夫前定山郡守蔡石芝寫'라는 묵서가 있어 1935년 음력 3월 상순에 제작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현재 확인되지 않으나, 정자관을 쓰고 흰색 옷 위에 옅은 청색의 덧옷을 착용한 채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오른손에는 접힌 부채를 쥐고 왼손에는 『주자대전朱子大全』을 펼쳐 들고 있으며, 바닥에는 화문석이 깔려 있다.
인물의 얼굴에는 섬세한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살렸으며, 이마와 눈가의 잔주름, 코와 광대뼈의 굴곡, 콧수염과 턱수염 등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특히 눈매와 입가에 명암을 더하여 표정을 사실적으로 나타냈으며, 정면을 응시하는 눈빛과 굳게 다문 입술에서 엄정한 인상이 드러난다.
의복은 옅은 청색과 흰색을 중심으로 채색하였으며, 옷깃과 소매, 무릎 주변에 음영을 넣어 자연스러운 주름과 부피감을 살렸다. 특히 옷자락의 윤곽과 겹쳐지는 부분을 청색의 가는 필선으로 처리하여 옷감의 질감과 입체감을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또한 양손을 소매 밖으로 드러내 책과 부채를 쥐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자세와 지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이 초상화는 인물을 화면 중앙에 정면으로 배치한 전통적인 초상화의 구도를 따르면서도, 얼굴의 정밀한 묘사와 의복의 음영 처리, 지물을 활용한 구성에서 채용신 특유의 사실적인 화풍을 보여준다. 특히 1935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채용신의 만년 초상화풍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089

화조 花鳥 2점

종이에 채색/ 액자
128.5x31.3cmx2

₩ 1,500,000-3,500,000



090

소치 허련 小癡 許鍊

양천陽川, 정일精一/ 1808-1893

묵모란 8폭병풍 墨牡丹八幅屛風

종이에 수묵/ 병풍
55x30.2cmx8

₩ 4,000,000-9,000,000



091

작가미상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3x28.5cm

₩ 1,000,000-2,200,000

犬吠水聲中 桃花帶雨濃

물소리 사이로 개 짖는 소리 들리고,
복사꽃은 비를 머금어 더욱 짙어졌네.



092

퇴촌 김식 退村 金埴

연안延安, 중후仲厚/ 1579-1662

섭우도 涉牛圖

종이에 수묵/ 액자
40.7x28.7cm

₩ 5,000,000-13,000,000

퇴촌 김식은 조선 중기의 문인화가로, 산수와 영모에 능하였으며 특히 소 그림으로 이름을 알렸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화가인 양송당 김시養松堂 金禔(1524-1593)의 손자로, 집안에서 전해 내려온 화풍을 계승하여 자신만의 화법을 발전시켰다. 특히 먹의 농담과 간결한 필치를 활용한 소 그림으로 조선 중기 영모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출품작은 산수를 배경으로 물을 건너는 소 한 마리를 그린 섭우도涉牛圖이다. 화면 상단에는 먹의 농담으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산세를 표현하였으며 중앙에는 수풀과 바위를, 하단에는 물가에 크고 작은 돌과 풀을 간략하게 그려 넣었다. 소는 머리를 낮게 숙이고 앞다리와 머리를 물가에 들여놓은 모습으로, 물을 건너려는 순간을 포착하여 묘사하였다.

소의 몸통은 뚜렷한 윤곽선보다 담묵의 선염을 활용하여 부드러운 양감과 자연스러운 음영을 나타냈다. 반면 양쪽으로 굽은 뿔과 발굽은 농묵으로 강조하였으며, 눈동자 주변에 흰 여백을 남겨 둥근 눈매를 표현하였다. 소의 형태를 비교적 세밀하게 묘사한 것과 달리 배경의 산수는 간결한 필치로 처리하여 소박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작품에는 일중 김충현一中 金忠顯(1921-2006)의 배관기가 남아 있는데, '金退村 埴 字仲厚 涉牛圖'라고 적혀 있어 후대에 이 작품이 퇴촌 김식의 소 그림으로 전해졌음을 보여준다.



093

소치 허련 小癡 許鍊

양천陽川, 정일精一/ 1808-1893

소치묵존 小癡默存

종이에 먹·수묵/ 병풍
21.7x33cm(22면)

₩ 4,000,000-9,000,000



제21폭 玉立蕭蕭竹數竿 風枝露葉帶清寒
去年胡曲人家見 底事移來紙上看

옥처럼 곧게 서 있는 몇 줄기 대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와 이슬 맺힌 잎에
맑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네.
지난해 호곡胡曲의 어느 집에서 보았던 것인데,
어찌하여 이제 종이 위로 옮겨져 눈앞에 나타났는가.



제1폭 春濃露重 地暖草生 山深日長 人靜香透
趙彝齋語

봄기운이 무르익으니 이슬이 짙게 내리고,
땅이 따뜻해지니 풀이 돋아난다.
산이 깊으니 해가 길고,
사람이 고요하니 향기가 은은히 스며든다.
조이재(조맹부)의 말.



호렵도는 험준한 산과 들판을 배경으로 사냥터로 향하는 호인胡人의 행렬과 말을 타고 사냥하는 무사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조선 후기인 18세기부터 활발하게 제작되어 19세기 말까지 유행하였으며, '호렵'이라는 명칭은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의 선조인 여진족을 '호인'이라 부른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품작은 여덟 폭의 화면을 연결하여 사냥 행렬과 수렵 장면을 묘사한 호렵도 병풍이다. 제1폭부터 제4폭까지는 산길과 계곡을 따라 사냥터로 이동하는 행렬을, 제5폭부터 제8폭까지는 말을 탄 무사들이 짐승을 쫓으며 사냥하는 장면을 그렸다. 화면 곳곳에는 호랑이와 멧돼지, 사슴, 꿩 등 다양한 동물이 등장하며, 특히 제5폭 하단에는 흰 호랑이 한 마리가 묘사되어 눈길을 끈다. 산과 계곡을 따라 배치된 나무들은 가을의 정취를 드러내며, 굽이치는 산길과 굴곡진 지형을 이용해 행렬과 사냥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다.
배경을 이루는 산세와 계곡은 담묵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표현하고, 인물과 동물은 가는 필선과 선명한 채색으로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말을 달리며 활을 쏘거나 짐승을 추격하는 무사들의 다양한 자세와 달아나는 동물들의 움직임이 화면에 활기를 더한다. 담묵으로 처리한 산수 배경과 상대적으로 짙은 채색의 인물 · 동물이 대비를 이루며, 여덟 폭에 걸쳐 이어지는 수렵 장면의 역동성을 강조하였다.

094

호렵도 8폭병풍 胡獵圖八幅屛風

종이에 수묵채색/ 병풍
89.3x332.8cm

₩ 13,000,000-28,000,000

095

미산 허형 米山 許瀅

양천陽川/ 1862-1938

산수 山水

비단에 수묵담채/ 액자

149.2x47.5cm

₩ 700,000-2,000,000



絶壁過雲開錦繡 疎松隔水奏笙篁

구름 지나간 절벽에는 비단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물 건너 성긴 소나무는 생황을 연주하는 듯하네.

096

의재 허백련 毅齋 許百鍊

양천陽川/ 1891-1977

십군자 10폭병풍 十君子十幅屛風

종이에 수묵/ 병풍

130x32.5cmx10

₩ 2,500,000-5,000,000



097

사호 송수면 沙湖 宋修勉

여산驪山, 안여顔汝/ 1847-1916

사계산수 10폭병풍 四季山水十幅屛風

종이에 수묵담채/ 병풍
101.7x29.2cmx10

₩ 5,000,000-12,000,000

사호 송수면은 조선 말기 호남 지역에서 활동한 문인 화가로, 나비 그림을 잘 그려 '송나비'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매화와 대나무를 비롯한 사군자뿐 아니라 산수와 화조 등 다양한 화목을 그렸으며, 『고씨화보顧氏畫譜』와 『십죽재서화보十竹齋書畫譜』 등의 중국 화보를 학습하고 소치 허련小癡 許鍊(1808-1893)과 교유하면서 전통적인 남종문인화풍을 익혔다.

출품작은 사계절의 산천 풍경을 열 폭에 나누어 그린 산수도이다. 높이 솟은 봉우리와 기암절벽, 계곡을 따라 흐르는 폭포, 넓게 펼쳐진 강과 호수 등 다양한 자연 경관을 담고 있으며, 산중의 누각과 정자, 강가의 마을과 나룻배, 길을 오가는 인물들을 곳곳에 배치하였다. 각 폭은 근경의 바위와 수목에서 중경의 물길과 마을을 거쳐 원경의 산봉우리로 이어지는 공간 구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산세의 형태와 경물의 배치를 달리하여 변화를 주었다.

산과 바위는 가는 윤곽선과 부드러운 필선으로 형태를 잡고, 담묵과 청록색, 옅은 갈색 등을 더해 굴곡과 원근을 표현하였다. 수목에는 녹색과 황색, 붉은색 등을 사용하여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나타냈으며, 전체적으로 은은한 담채를 사용해 부드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각 폭 상단에는 제화시를 곁들여 시서화가 어우러지는 문인화의 형식을 갖추었다.







098

미산 허형 米山 許瀅

양천陽川/ 1862-1938

십군자 10폭병풍 十君子十幅屛風

종이에 수묵/ 병풍

98x33cmx10

₩ 1,200,000-2,500,000



099

의재 허백련 毅齋 許百鍊

양천陽川/ 1891-1977

목재 허행면 木齋 許行冕

양천陽川/ 1906-1966

산수 山水·설리춘풍 雪裏春風

1962년(임인)

종이에 수묵담채/ 가리개

118.5x32.2cmx2

₩ 1,200,000-2,700,000



100

조선전도 朝鮮全圖

종이에 목판인쇄·담채/ 액자
99x59cm

₩ 5,000,000-10,000,000

본 지도는 조선 팔도의 산천과 군현, 도로 및 도서島嶼를 한 폭에 수록한 조선전도이다. 북쪽의 백두산과 압록강 · 두만강 유역에서 남쪽의 제주도와 대마도에 이르기까지 국토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었으며, 산맥과 하천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지리적 관계와 군현의 분포를 상세하게 표현하였다. 조선 전기에 형성된 전국지도 제작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국보인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와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동국팔도총람도東國八道總覽圖 등에서 확인되는 전통적인 조선전도의 구성과 지형 표현 방식을 보여준다.

지도는 북쪽을 위로 하여 한반도를 세로로 길게 배치하고, 산줄기와 물줄기가 국토 전역에 이어지는 모습을 강조하였다. 특히 북부 지역의 산맥은 여러 겹의 굵고 긴 선으로 표현하여 산세의 흐름을 뚜렷하게 드러내었으며, 각 지역의 산지는 굴곡진 선과 봉우리 모양을 반복하여 나타내었다. 산천 사이에는 각 군현의 명칭을 세밀하게 기재하고, 해안과 주변 해역에는 크고 작은 섬을 표시하였다. 남쪽에는 제주도와 대마도를 별도로 묘사하여 당시의 지리적 인식과 공간 구성을 보여준다. 목판으로 인쇄한 지형과 지명 위에 붉은색과 푸른색 등의 채색을 가하여 지역과 지리적 요소를 구분하였다.

출품작은 산맥과 하천을 중심으로 군현을 배치하고 한반도의 전체적인 윤곽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지도 제작 방식을 계승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전국 지도의 전승과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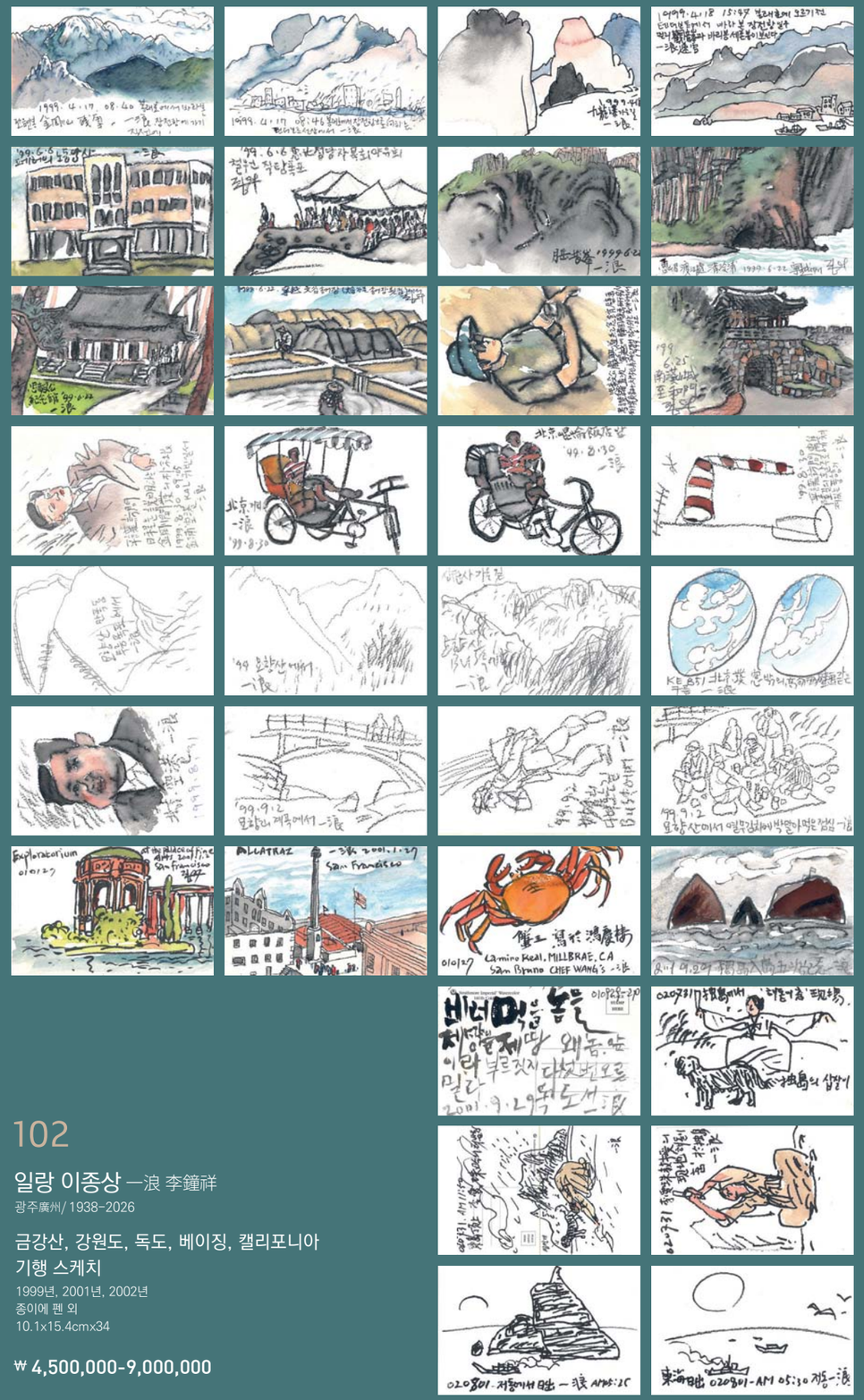
소산 박대성 小山 朴大成

1945-

연꽃 蓮花

1998년
천에 수묵·먹/ 액자
51.3x30cm

₩ 1,500,000-3,500,000



102

일랑 이종상 一浪 李鐘祥

광주廣州/ 1938-2026

금강산, 강원도, 독도, 베이징, 캘리포니아 기행 스케치

1999년, 2001년, 2002년
종이에 펜 외
10.1x15.4cmx34

₩ 4,500,000-9,000,000

103

문신 文信

남평南平/ 1923-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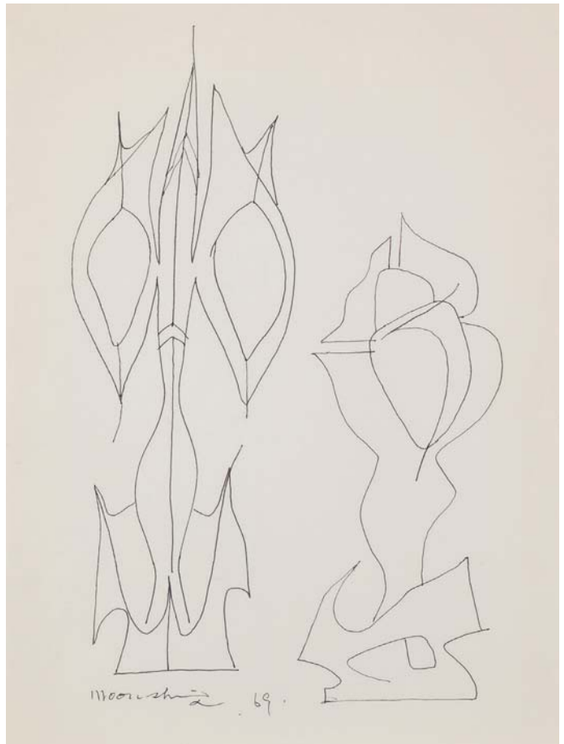
무제

1969년
종이에 펜/ 액자
30x22.4cm

₩ 800,000-2,000,000



작품수록처 | 『한국현대미술 대표작가 100인 선집 - 49 문신』, 금성출판사, 1977, p.5



104

남관 南寬

영양英陽/ 1911-1990

무제 無題

종이에 펜·수채/ 액자
27.5x20.2cm

₩ 600,000-1,400,000



105

남관 南寬

영양英陽/ 1911-1990

회상 回想

1961-1963년
하드보드에 유채/ 액자
60.5x19.5cm

₩ 4,500,000-10,000,000





작품수록처 | 『남관의 추상회화 1955-1990』, 갤러리현대, 2019, p.39



106

일랑 이종상 一浪 李鐘祥

광주廣州/ 1938-2026

독도 獨島 10점

2001년
혼합재료
56x13.2cm 외

₩ 2,500,000-5,000,000



107

미당 서정주 未堂 徐廷柱 서

달성達城/ 1915-2000

망일산인 김세종 望日山人 金世鍾 화

?-?

내가 돌이 되면 : 도자화

도자에 안료
38.2x5.5x14.5cm

₩ 1,000,000-2,500,000



뒷면



앞면

108

송남 신상호 松南 申相浩 도자

1947-

김형근 金炯堇 화

1930-2023

쌍학 雙鶴 : 도자화

1978년
도자에 안료
33.2x26.3x13.5cm

₩ 1,000,000-2,500,000



뒷면



앞면

109

호랑이송죽매문벼루 虎松竹梅文硯

돌에 조각
3.6x24x13cm

₩ 3,000,000-6,500,000

110

연화문벼루 蓮花文硯

이왕직미술품제작소 李王職美術品製作所

돌에 조각/ 오동상자
0.8x14x10cm

₩ 1,000,000-2,300,000



111

당초문벼루 唐草文硯

평양명산 平壤名産

돌에 조각/ 종이상자
2.4x18.2x12cm

₩ 500,000-1,200,000



112

매죽조어문벼루 梅竹釣魚文硯

돌에 조각
1.7x21.3x13.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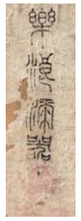
₩ 5,000,000-10,000,000











113

나전봉황문구형합 螺鈿鳳凰文球形盒

화신백화점 和信百貨店

나무에 옻칠, 나전장식/ 오동상자
15.3x12.2x12.2cm

₩ 800,000-2,000,000



114

나전당초문삼족받침대 螺鈿唐草文三足圓形臺

해시상회 海市商會

나무에 옻칠, 나전장식/ 오동상자
5x14.3x14.3cm

₩ 400,000-1,000,000

115

백동난사·응전명 화로
白銅蘭麝·凝篆銘火爐

백동에 조각
24x17.5x25cm

₩ 6,000,000-13,000,000



앞면



뒷면



앞면



뒷면

116

오복문주머니모양열쇠패 五蝠文囊形鍵牌

금속에 조각, 채색
8.6x9.8cm

₩ 2,000,000-4,500,000

117

상평통보용문사각열쇠패 常平通寶龍文四角鑰牌

금속에 조각, 채색
16.8x13.2cm

₩ 3,000,000-6,500,000



앞면



뒷면



118

백택·용문주머니모양열쇠패
白澤龍文囊形鍵牌 2점

금속에 조각, 채색
8.2x10cmx2

₩ 3,000,000-6,000,000



뒷면



주식회사 칸옥션 제45회 미술품경매

전시
기획·총괄 고은비
자료정리 고은솔
대외협력 김봉수
전시·진행 이정현, 임예흔, 임유지, 임재현

도록
편집·해설 고은비, 고은솔
사진 Lighthouse Studio 010.9050.7056
디자인 디자인숲 02.323.8147

경매 2026년 11월 27일(금) 오후4시
칸옥션 전시장
전시 2026년 11월 16일(월) - 11월 26일(목) 오전10시-오후7시
칸옥션 전시장
* 토·일요일도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인쇄
2026년 11월 16일 발행

발행처·인 칸 KAN Auction

03148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4길 17, 107호(건국빌딩 건국관)
☎ 02.730.8542 Fax 02.735.2566
e-mail kan@kanauction.kr
www.kanauction.kr

Copyright©2026 KAN Auction Inc.
이 책에 실린 사진과 글은 주식회사 칸옥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오류를 알려 주시면 바로 잡겠습니다.
* 이 도록은 회원에게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칸옥션 제46회 미술품경매 작품 위탁안내

경매일정 2027년 2월 26일(금) 예정
작품위탁일정 2027년 1월 29일(금) 까지
문의 02.730.8542
kan@kanauction.kr

주식회사 칸옥션 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칸옥션(이하 '회사' 라고 합니다)의 경매에 관한 절차와 기준, 경매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정의)
① 의뢰인 : 아직 위탁자나 응찰자로서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며, 회사에 대해 작품 출품, 감정, 판매 등의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② 위탁자 :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진 본인 소유의 작품을 회사의 경매 절차에 따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③ 응찰자 : 회사가 개최하는 경매에 자율적 의사로 참여하여 작품을 낙찰 받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④ 낙찰자 : 회사의 경매에 참여 · 응찰하여 해당 작품을 낙찰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⑤ 시작가 : 회사의 경매사가 작품 입찰을 시작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⑥ 낙찰가 : 회사의 경매사가 호가를 완료한 후 경매봉을 두드리고, 최고 응찰자의 패들 번호와 응찰가를 확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⑦ 구매가 : 낙찰가에 약관에 정한 구매수수료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을 말합니다.
⑧ 내정가 : 회사와 위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최저낙찰가격을 말합니다.
⑨ 추정가 : 회사가 미술품 시장의 거래 가격, 희소성, 자료의 가치, 미술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정해 하한가와 상한가입니다.
⑩ 회원 : 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등록을 한 사람으로, 정회원과 준회원(인테넷 회원)으로 구분합니다.
⑪ 이용자 : 회사가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뢰인, 회사의 경매에 참여하거나 회사가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위탁자, 응찰자, 낙찰자 또는 회원을 말합니다.
⑫ 기한 : 이 약관에서 말하는 기한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휴일, 공휴일 등 비영업일이 포함된 것입니다. 비영업일 기준은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⑬ 경매사 : 회사를 대표하여 경매의 모든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⑭ 호가 : 회사의 경매사가 경매 시 부르는 작품의 가격과 상승 범위를 말합니다.

제 3조 (회원)
① 회사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고 등록 절차를 수행하면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연회비는 어떤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정회원은 회사에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홈페이지 이용 및 각종 정보 제공, 온라인 경매 이용, 온라인 마켓 구매, 소장 작품의 무료 감정 · 출품 · 판매 무료 상담, 주요 경매 응찰 자격, 회원 기간 동안의 도록 발송 서비스, 특별 · 기획 전시도록 발송 및 초대 자격을 갖습니다.
③ 준회원(인터넷회원)은 무료 회원으로, 홈페이지 이용 및 각종 정보 제공, 온라인 경매 이용, 온라인 마켓 구매, 소장 작품의 감정 · 출품 · 판매 자격을 갖습니다.
④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회사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및 작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매를 방해하는 경우
2. 가입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3. 경매와 관련된 낙찰대금 등 기타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경매 참여를 방해, 회원명의 대여 등 미술시장 및 경매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
5. 경매에 관한 위법 행위, 약관 위배 행위, 기타 통상적인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4조 (작품 위탁)
① 위탁자는 출품료를 납부하고 작품을 위탁할 수 있으며, 우수 위탁자의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접수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문화재보호법, 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작품인 경우
2. 작품의 진위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회사 경매의 방향과 특성에 맞지 않거나, 경매 작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위탁자와 회사 사이에 작품 가격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5. 타 회사의 경매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회사는 위탁자에게 경매 출품 및 진행에 관한 경비(작품 사진촬영, 해제, 도록제작, 일반감정비 등 1점당 ₩100,000)를 위탁시 징수할 수 있으며, 우수 위탁자의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품의 진위 시비로 특별 감정이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별도의 감정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 감정수수료는 작품이 경매에서 유찰된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1. 위탁자는 위탁 작품에 대하여 법률상 독점적 배타적 처분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2. 위탁자는 위탁 작품에 대하여 제 3자가 유치권, 질권 등 기타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위탁자는 경매 낙찰 및 대금 납부와 동시에 위탁 작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됨을 보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위탁을 의뢰한 작품을 회사에서 경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 통보하고, 위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7일 안에 작품을 인수해야 합니다. 위탁자의 인수지연으로 발생하는 작품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인수 기간 경과 후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매 일당 작품 보관료를 징수합니다.
5. 위탁자는 위탁 작품이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위탁 작품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작품임이 드러나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위탁자는 수령한 대금 전액을 즉시 회사에 환입하여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책임과 회사가 입는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위탁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위탁자 임의로 작품 위탁를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사정이 발생하여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위탁수수료와 낙찰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철회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수수료는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의 평균금액을 낙찰가격으로 보고 제9조에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위탁자의 위탁 철회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위 위약벌 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위탁자는 유찰된 작품을 경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15일 경과 후에 발생된 작품의 훼손, 분실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회사에서 정한 매 일당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위탁 작품이 낙찰되는 경우 회사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낙찰대금에서 위탁수수료와 제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낙찰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위탁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위탁대금 지급일이 금융기관의 비영업일일 경우 지급일은 그 일 수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 5조 (경매 방식)
① 회사는 경매 전에 응찰 희망자가 출품작을 미리 살펴 볼 수 있도록 사전 전시회(프리뷰)를 개최합니다.
② 경매 진행은 도록에 기재된 작품번호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예정된 작품의 경매를 취소할 수 있고, 동일 번호의 여러 작품을 분할 경매하거나, 여러 번호의 작품을 일괄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③ 회사와 위탁자는 경매 개시 전에 경매 작품의 최저낙찰가인 내정가를 협의 · 확정하며, 회사는 내정가를 경매 시작가로 책정합니다.
④ 호가는 전적으로 경매사의 재량에 의하며 경매사는 경매 진행시 호가 증가분을 미리 제시합니다. 응찰자는 구두로 임의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으나, 경매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응찰의 참고 자료로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를 정하여 응찰자에게 제공합니다. 추정가는 회사가 미술품 시장의 거래 가격, 희소성, 자료의 가치, 미술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정해 하한가와 상한가입니다. 그러므로 추정가는 경매의 참고를 위한 가격일 뿐 회사가 보증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또한 추정가는 낙찰가와도 무관하며, 회사는 추정가가 대외적으로 인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경매사는 최고 응찰액을 2회 이상 부르고 경매봉을 두드린 후, 최종적으로 최고 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하여 낙찰자와 최고 낙찰가를 결정합니다.
⑦ 경매사는 응찰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응찰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유효 응찰자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작품을 재경매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고 경매사가 다음 작품의 경매를 시작한 이후에는, 어떤 사람도 이전 작품의 경매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6조 (응찰자 의무)
① 경매에는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과 회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응찰할 수 있습니다.
② 응찰은 현장에서 하는 공개응찰, 서면응찰, 전화응찰의 방법이 있습니다.
③ 공개응찰은 회사 소정의 경매응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응찰팻말(패들)을 교부받아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찰팻말을 교부받은 회원은 경매 현장에 참석하여 경매사의 호가에 따라 응찰팻말을 들어 응찰 의사를 표시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면응찰 또는 전화 응찰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매 상황을 인터넷이나 TV 생중계로 진행할 경우에는 전화응찰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찰자는 원활한 경매 진행을 위하여 하루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경매 참여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⑤ 출품작에 대해 내정가 이상을 제시한 응찰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최고가를 제시한 응찰자에게 낙찰됩니다.
⑥ 공개응찰자와 서면응찰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응찰한 경우에는 서면응찰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동일한 가격의 서면응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서면으로 경매응찰신청서를 제출한 응찰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⑦ 낙찰자는 낙찰 작품이 문화재보호법 상 저촉되는 문화재나 유물일 경우, 이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수출할 수 없습니다.
⑨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한 경매 작품에 응찰할 수 없습니다.

제 7조 (회사의 권리 및 책임의 한계)
① 천재지변 등 회사에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된 경매일자 · 시간 ·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경매 전 전시회(프리뷰) 관람을 원하는 사람의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및 작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매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회사의 재량으로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위탁계약이 성립된 작품에 대하여 회사는 홈페이지와 관련인쇄물에 회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회사는 경매 출품을 위한 촬영한 작품 사진에 대한 사용권 및 저작권을 갖습니다.
④ 경매 작품의 진위 시비, 거래의 불법성 시비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

는 위탁 작품을 경매에 출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매에 출품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위탁자나 낙찰자에게 원상회복 이외의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⑤ 서면이나 전화에 의한 경매 응찰신청이 있었고 회사가 이를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실수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응찰이 경매에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8조 (응찰자의 의무)

① 경매 도록에 기재된 작가명, 작품명, 재질 · 재료, 크기, 출처 등의 모든 내용은 회사의 의견일 뿐, 불변의 절대적 사실이 아닙니다.

② 회사는 위탁된 작품을 출품하므로, 응찰자는 경매 이전에 응찰 희망 작품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경매 작품의 상태 및 속성과 관련해 제공하는 설명과 작품 이미지(도판) 가운데 회사는 약관 12조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응찰자는 작품의 훼손 및 복구 여부, 도록 기재의 오류 및 생략 부분, 작품 이미지와 실물의 색감 차이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경매에 참여해야 합니다. 회사는 응찰자가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전제 아래 경매를 진행합니다.

제 9조 (수수료 및 세금)

①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는 낙찰가의 10%(부가가치세 10% 별도)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예) 낙찰가가 10,000,000원일 경우
10,000,000×10%=1,000,000원의 위탁수수료와 10%의 부가가치세 100,000원을 합산한 1,100,000원이 총 위탁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위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0,000,000원(낙찰가)-1,100,000(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 10% 포함)=8,900,000입니다.

② (낙찰수수료)
낙찰수수료(구매수수료)는 낙찰가의 15%(부가가치세 10% 별도)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예) 낙찰가가 10,000,000원일 경우
10,000,000×15%=1,500,000원의 낙찰수수료와 10%의 부가가치세 150,000원을 합산한 1,650,000원이 총 낙찰수수료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0,000,000원(낙찰가)+1,650,000(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 10% 포함)=11,650,000원입니다

③ (위탁자의 미술품양도세)
작고작가의 작품,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세 부과는 작품가액이 60,000,000원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양도일 현재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됩니다. 세율은 6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과세하며, 매입 원가를 소명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의 100분의 80(소장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미술품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화 · 골동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함)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 · 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2. 제1호의 서화 · 골동품 외에 역사상 · 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 · 골동품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 10조 (낙찰대금 납부와 작품인도)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낙찰가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경매 작품 대금, 낙찰 수수료(부가가치세 10% 포함)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총 구매대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단 낙찰가 3억원 이상일 경우 구매자는 7일(비영업일 포함) 안에 30%의 금액을 선납해야 합니다. 납입기일이 비영업일일 경우에는 익일을 납입기일로 합니다.

②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낙찰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총 구매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사정으로 철회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위약벌로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위약벌의 약정은 회사와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낙찰자가 7일 이내에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낙찰자가 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철회하고 재경매 및 다른 방법으로 작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10조 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위약벌로 낙찰대금의 30%를 회사에 납입하야 합니다. 위 위약벌의 약정은 회사와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위탁자에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⑤ 낙찰자는 총 구매대금을 회사 지정의 은행계좌(신한은행 140-011-338178 주식회사 칸옥션) 송금, 자기앞수표, 현금 등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⑥ 낙찰자는 응찰 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구매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⑦ 낙찰자는 대금완납 후 7일 이내에 구매 작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작품 인수가 지연되는 경우에 회사 규정의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대금완납 후 21일이 지나도록 작품을 인수해가지 않는 경우, 해당 작품 손상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지 않습니다.

제 11조 (경매 후 세일)

① 위탁자가 작품을 위탁하면서 회사에 별도의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위탁자의 작품이 경매 출품 후 유찰될 경우에 회사는 위 작품을 07일간 보관하고, 이를 경매 후 판매(애프터 세일)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매 출품 후 유찰된 모든 작품이 경매 후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며, 경매 후 판매 여부는 위탁자의 명시적인 요구사항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사가 결정합니다).

② 경매 후 판매는 칸옥션 약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 12조 (운송과 보험)

① (운송)
위탁자나 낙찰자가 작품의 운송을 원하는 경우, 회사는 위탁자나 낙찰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 아래 작품의 운송 및 보험가입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
위탁자가 회사에 경매 작품을 인도할 시점부터 회사가 경매 준비, 전시, 경매, 낙찰자 인계 등의 보관 관리를 하는 동안 회사가 임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3조 (보증과 원상회복)

① 회사는 경매작품에 대하여 도록상 첫 줄에 굵게 인쇄된 표제사항에 대하여만 중개인으로서 보증합니다. 그 이외에 도록에 실린 보조설명이나 추정가, 기타 회사 직원이 구두 또는 글로 표현한 내용은 참고자료일 뿐 보증의 내용이 아닙니다.

② 낙찰자가 원하는 경우 회사는 위 보증의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③ 중개인으로서 회사의 보증기한은 낙찰일로부터 3년까지이며, 이 기간 중 보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회사는 낙찰을 취소하고 낙찰대금과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낙찰자가 회사의 보증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낙찰자는 해당 작품이 거래된 경매 일자와 작품 번호, 문제제기의 납득할 만한 근거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2. 낙찰자는 회사의 보증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갖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3. 낙찰자는 해당 작품을 경매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회사에 인도해야 합니다.

④ 낙찰자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 회사와 낙찰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낙찰자에게 관련 분야 전문기관 2곳으로부터 서면 형식의 의견을 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낙찰자와 회사 모두가 인정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회사 및 낙찰자는 각자의 비용으로 다른 전문가의 추가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⑤ (보증제외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는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1. 경매 당시 경매작품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으나, 이후 전문가의 의견이 수정되었거나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2. 학계나 전문가 집단에서 이견의 가능성을 도록을 통해서나 현장에서 고지한 경우
3. 경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던 방법이나 비현실적인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검증 방법 또는 파괴분석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보증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경우

⑥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위탁자도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습니다.

⑦ (양도 불가)
보증항목에서 보증하는 내용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 내용은 처음 구매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첫 구매자가 3년 이내에 사망하여 해당 작품이 상속되었을 경우, 보증 내용은 그 상속인에게 양도됩니다.

⑧ (보증책임의 한계)
회사의 보증 책임은 낙찰자가 회사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는 이자나 통화가치 변화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제 14조 (약관의 개정 등)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도록, 작품 위탁 및 응찰에 관한 각종 신청서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재합니다.
약관의 내용이 많아 게재할 수 없는 경우 별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후 조항을 비교 명시하여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 15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칸옥션 회원가입 신청서

응찰방법	☐ 개인 ☐ 사업자 (개인, 법인)		
	☐ 준회원 ☐ 정회원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명 · 사업자명	실명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개인, 사업자 모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뒤 1자리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회원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번호			
비상전화번호	비상시 연락받으실 번호입니다.		
이메일	경매정보를 안내받으실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우편물, 도록, 중요 서류(출품·낙찰 등), 작품 등을 받으실 주소를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			
관심분야	☐ 글씨 · 탁본 ☐ 그림 ☐ 도자기 ☐ 민속공예품 ☐ 책 · 문서 ☐ 현대미술 ☐ 기타		
회원구분	준회원	정회원	국내 및 해외거주 외국인, 국외동포
	준회원에 가입하신 분께는 홈페이지 이용 자격 경매 응찰 자격 소장하신 작품의 감정 · 출품 · 판매 등의 상담을 해 드립니다.	연회비(₩100,000)를 납부하신 회원께는 준회원의 자격을 포함하여 경매도록 발송 서비스(회원 기간 동안) , 특별 · 기획 전시도록 발송 및 초대 자격 , 홈페이지 유료 정보 무료 이용 자격과 소장하신 작품의 감정 · 출품 · 판매 등의 무료상담을 해 드립니다.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1-338178 주식회사 칸옥션	국내 및 해외거주 외국인, 국외동포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와 요청 사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자료 송부, 도록 발송, 도록 PDF 파일 (이메일 전송)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소장하신 작품의 감정 · 출품 · 판매 등의 무료상담을 해 드립니다.
회원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 직접 제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스캔하여 이메일 송부 kan@kanauction.kr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송부 ☎02.735.2566		
작품의 감정·출품·판매 문의방법	이메일 kan@kanauction.kr 으로 작품 사진 및 자료 송부 전화 ☎02.730.8542 문의 또는 팩스 ☎02.735.2566 송부		
정보제공 및 수신 동의	☐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메일, SMS(문자메시지), 기타 SNS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비동의		
	주식회사 칸옥션은 회원에게 약관을 별도 배부한 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고객의 동의 아래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인은 별도 배부한 약관 내용을 [☐ 듣고 , 잘 이해하였으며] 그 내용에 동의한 후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서명

칸 KAN Auction
03148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길 17, 107호(경운동, 건국빌딩 건국관) 주식회사 칸옥션
☎02.730.8542 Fax 02.735.2566 www.kanauction.kr kan@kanauction.kr

칸옥션 경매 응찰신청서

경매명	제 회 경매		
경매일시 및 장소	20 년 월 일 ( ) 오후 시 · 주식회사 칸옥션 전시장		
입찰자격	☐ 개인 ☐ 사업자 (개인, 법인)		
응찰방법	☐ 현장 ☐ 서면 ☐ 전화		
접수일시	월 일 시 분 *24시 기준	담당자:	서명
성명 ·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개인, 사업자 모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뒤 1자리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회원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아이디는 회원가입 시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휴대전화번호			
비상전화번호	비상시 연락받으실 번호입니다.		
낙찰시 배송주소	회원 가입시 주소와 동일하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응찰 희망 작품

작품번호	작가명 / 작품명	응찰 상한가격(원) 가격을 한글로 쓰시기 바랍니다.

☐ 경매 응찰의 우선 순위 · 응찰자 의무 · 응찰 동의

1. 서면응찰 신청인은 위 경매작품에 대하여 응찰 상한가격까지 응찰하는 것에 동의하며, 모든 절차를 주식회사 칸옥션에 위임합니다. 또한 회사는 신의 ·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응찰을 진행합니다.
2. 동일한 응찰 상한가격의 서면응찰자가 경합할 경우, 회사에 응찰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응찰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집니다.
3. 현장, 서면, 전화 응찰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응찰하여 경합할 경우, 서면>현장>전화 응찰 순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4. 응찰(현장, 서면, 전화) 후 낙찰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낙찰을 철회할 경우 낙찰일로부터 0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낙찰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위약벌의 약정은 회사와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위 응찰 신청인은 회사가 별도 배부한 약관을 수령한 후 읽고, 응찰에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 듣고, 잘 이해하였으며] 모든 절차에 동의한 후 경매 응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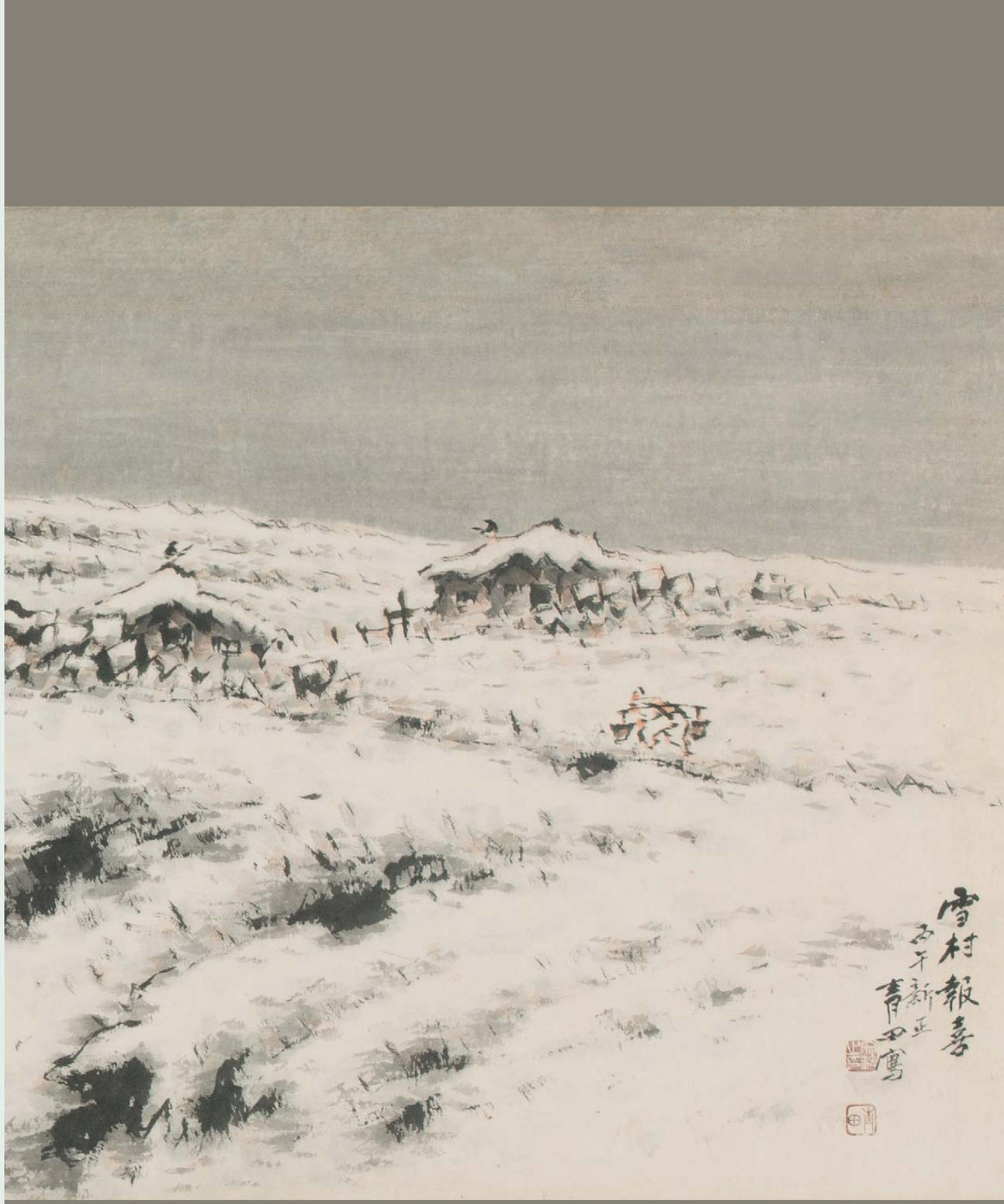
주식회사 칸옥션은 위 원칙에 따라 모든 경매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찰 신청인 인 · 서명

칸 KAN Auction

03148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길 17, 107호(경운동, 건국빌딩 건국관) 주식회사 칸옥션
☎02.730.8542 Fax 02.735.2566 www.kanauction.kr kan@kanauction.kr



사람과 역사, 문화의 빛, 예술의 향기

미술품경매 칸옥션에서는
한국 미술을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귀한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